

제 7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노 동 은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유아 지도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유아교육 전공

권 은 희

2011년 2월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유아 지도방안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유아교육 전공

권 은 희

권 은 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11년 2월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4
3. 자료의 실태	5
II. 제주도의 자장가 문화와 실태	7
1. 제주도 생활풍속과 출생 및 육아의례	7
2.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 및 교육실태	14
III.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음악 교육적 특성	19
1. 「왕이자랑」의 음악적 특성	19
2. 「왕이자랑」의 교육적 특성	23
IV. 「왕이자랑」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27
1. 「왕이자랑」 교수-학습지도안	28
1) 「왕이자랑」 감상단계 교수학습지도안	29
2)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31
3) 「왕이자랑」 놀이와 표현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34
V. 사전-사후 검증	38
1. 평가 내용과 방법	38
2. 사전 · 사후 검사 비교	38

VI. 결론 및 제언	47
참고문헌	50
부록	52
<부록 1> 교수학습 지도안	52
<부록 2> 활동사진	81
<부록 3> 활동지	83
<부록 4>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전승실태 설문지	85
<부록 5> 악보	89
국문초록	92
ABSTRACT	94

표 목 차

<표 1> 「왕이자랑」의 활동 계획안	27
<표 2> 감상단계 교수학습지도안	29
<표 3> 노래 부르기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32
<표 4> 놀이와 표현단계 교수학습지도안	35
<표 5>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인식변화	38
<표 6> 조형 활동단계 교수학습지도안	52
<표 7> 허벅장단 활동단계 교수학습지도안 1	56
<표 8> 허벅장단 활동단계 교수학습지도안 2	59
<표 9> 놀이와 표현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62
<표 10> 동작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64
<표 11> 물허벅 굿거리장단	68
<표 12> 오돌또기 춤	68
<표 13> 통합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71
<표 14> 발표와 구전의 교수학습지도안	78

대본

<대본> 자랑자랑 왕이자랑	74
----------------------	----

악 보 목 차

<악보 1> 「왕이자랑」 김주옥	21
<악보 2> 「왕이자랑」 백술생	91
<악보 3> 「왕이자랑」 현영호	92
<악보 4> 「왕이자랑」 화북동	93

그림 목 차

<그림 1> 90년대 이후의 「왕이자랑」 분포도	16
<그림 2> 전통방식의 애기구덕 · 변형된 애기구덕	17
<그림 3> 자장가의 의미인식 사전 · 사후	40
<그림 4> 자장가의 가창 선호도	40
<그림 5> 자장가의 가창자 빈도	41
<그림 6> 애기구덕의 용도인식 사전 · 사후	42
<그림 7> 물허벅의 용도인식 사전 · 사후	42
<그림 8> 유아들의 활동 선호도	43
<그림 9> 유아들의 「왕이자랑」 요청 빈도	44
<그림 10> 「왕이자랑」 생활 적용도	44
<그림 11> 「왕이자랑」 가정에서의 재현	45
<그림 12> 「왕이자랑」 의 전승기대도	45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말이 다르면 음악이 달라진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차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독특한 언어와 독창적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옛 부터 제주도는 삼다(여자 · 돌 · 바람)의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제주인의 삶은 매우 고단하였다. 그 척박한 땅과 험난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그들의 민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민요라 하는 것은 향토문화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궈내는 것이다. 따라서 민요 속에는 조상들의 생활 감정이 스며있고 그들의 공감이 담겨있다.¹⁾ 자연환경과 생활 공감이 노래로 나타나는 데 민요가 있다.

강대국사이에 위치한 지리적인 환경과 몽골의 지배, 왜구의 잦은 약탈의 역사를 가진 제주인 들은 공동체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불리한 생존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개척정신과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멸치를 잡을 때에도, 밭에서 김을 딸 때에도, 밤 이면 허벅을 등에 매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마을 단위의 결속으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 모든 공동체의식이 제주민요를 만들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민요는 다시 생산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주에는 유희요 보다는 노동요가 주류를 이룬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아기를 재울 때에도 육지처럼 등에 업거나 눕어서 재우지 않고 애기구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우면서도 발일을 할 수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 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좌우로 기우뚱하게 흔들면서 아기를 재우기 때문에 성인이 된 제주사람은 배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인 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어법이 담긴 제주방언으로 아이를 재우

1) 임동권, 『한국의 민요』 (서울: 일지사, 1986).

고 생산능률 뿐 만 아니라 멀리 아이의 장래까지 고려하는 교육이 영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농경 사회의 사회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도 음악 문화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농경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도 그 사회의 생활양식을 신 참자에게 학습하고 사회화를 시켰던 것이다.²⁾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교육되기 마련이다. 제주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던 갈중이를 이용하여 아기 옷을 해 입혔고,³⁾ 애기구덕에 뉘어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들으며 자라게 된 것이다.

제주도 자장가를 「애기 흥 그는 소리」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 혹은 「왕이자랑」 「왕이자랑」이라고 한다. 자장가는 제주도 민요 중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요이다. 이 민요는 애기구덕이라는 요람에 아기를 놓고 잠재우면서 부르는 민요이다.⁴⁾ 제주사람들은 현재에도 애기구덕을 사용한다. 비록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해도 애기구덕을 가지고 간다. 아쉬운 것은 애기구덕에 아이를 담고 흔들며 주기는 하나 들려주는 음악은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내지는 섬 집 아기 등과 같이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자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제주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통해 「왕이자랑」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 노래이지만 그 할머니들의 노래가 젊은 부모들에게 전승되지 못하였고,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이 제주도의 화두가 되면서 소중한 제주의 자장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장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음악이며, 첫 교육이다. 그 지역의 언어와 풍속 신앙이 담겨져 있으며, 가장 단순한 가락과 반복되는 어구로 아이들에게 초기 음악적 개념을 형성시킨다. 자장가로 습득된 음악개념은 성장하면서 전래동요나 민요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자장가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는 노동은의 『한국영아음악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자장가를 영아기음악의 하나로 보고 영아기음악의 중요성과 사회화과정을 추적하여 사라져가는 전승자들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자료를 채득하였다. 영아음악의 구조적 특징,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다른

2) 노동은, 『한국영아음악연구』 (서울: 음악춘추사, 1992), 11쪽.

3) 갈중이란 감 즙으로 염색해서 만든 제주도 옷이다.

4) 양조훈,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1996).

5) 노동은, 앞의 책.

문화현상과 관련된 것을 검증해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한국인에게 흐르는 음악적 맥을 집어내어 앞으로의 전망을 펼쳐 보였으며 영아음악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관련된 연구는 윤치부,⁶⁾ 조영배,⁷⁾ 좌혜경을 들 수 있다.⁸⁾

윤치부는 자장가의 성격으로 기능과 분류, 내용을 분석하고 형식, 문체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⁹⁾ 나아가 『제주 전래동요사전』에서는 제주지역의 자장가와 전래동요를 자료 수집하여 채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으나 제주도 전승동요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한정되어있어 아쉬움이 있다.¹⁰⁾

조영배는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의 근간으로 음악적 특성을 제1형, 제2형, 제3형으로 구분하여 음계와 종지음, 박자, 장단, 악곡형식, 가창방식, 표현 기교 등으로 연구 분석하였다.¹¹⁾ 무엇보다도 제주도 자장가에 대한 음악적 분석을 이루어낸 것과 연행적 특징과 박자관계를 조망하였다.

좌혜경은 제주도 전승동요를 직접 현지 조사 하고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가창방식과 내용 위주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 하여, 구비문학 및 아동 문학 등에 민속학적 연구에 이바지 하였으나 민속학자로서의 역할을 이은 전승동요와 자장가의 전승방안과 교수 학습과정에 관련한 방안연구는 제시되지 못하였다.¹²⁾

민요는 보존과 더불어 전승되어야 한다. 민요를 보존하려면 우선 민요를 채집해서 가사를 기록하고 가락을 채보해야 한다. 가사의 기록은 국문학도나 민요학도가 참여해야 하고 채보는 음악도와 민요학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¹³⁾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이어오는 것은 사람이 그 몫을 해주어야 한다. 단지 채보와 분석에서 그친다면 도서관에 자료로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부르는 사람이 사라지면 민요는 소멸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부르지 않으면 전승동요는 끊어지는 것이므로 소중한 유산을 다음세대로 전승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

6) 윤치부, 「한국자장가 연구 - 제주자장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제주도연구회, 1985) 163-214쪽.

7) 조영배,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서울: 민속원, 2009).

8) 좌혜경, 「제주 전승 민요연구」, 『민요전집』(민요학회 제11호, 1988) 337-390쪽.

9) 윤치부, 앞의 책.

10)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서울: 민속원, 1999).

11) 조영배, 앞의 책.

12) 좌혜경, 앞의 책.

13) 임동권, 앞의 책.

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유아수준에 맞는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적용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를 주제로 선정하여 제주도 한 마을 복지회관 노인 분들과 같은 마을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와 노인이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한다. 먼저 제주도 「왕이자랑」에 대하여 유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고 난 후 교안을 작성하고 총 10차시에 걸쳐 현장수업으로 적용 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의 자장가를 선정하였으며 유아들은 제주방언을 여전히 일상용어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과의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배우는 기회도 될 것이다.

제주의 양육방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여 교구로 애기구덕과 붓디창옷을 선정하고 장단을 위하여 허벅을 사용하였다. 제재 곡은 「왕이자랑」으로 한정하였다.¹⁴⁾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를 통하여 제주민요 속에서 자장가의 분류와 내용과 선법을 연구하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활풍속에 관한 문화적 배경연구를 선행한다.

둘째, 「왕이자랑」을 유아발달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수·학습과정 안을 마련한다. 「왕이자랑」수업 단계는 음악 감상과 전통 생활소품 탐색하기, 민요 배우기, 장단배우기(허벅장단), 생활소품 만들기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왕이자랑」에 대한 단계적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동네 노인 분들과 함께 직접적인 연계 수업을 마련한다.

셋째, 유아들에게 민요 따로, 장단 따로, 허벅 따로 하나하나 분리되어 각인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 흐름처럼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

14) ‘붓디창옷’은 제주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옷이다.

정을 짧은 소리 극으로 연출 한다.

넷째,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수업지도방안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3. 자료의 실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의 역사와 생활풍속, 신화, 제주민요 그리고 자장가와 관련된 전승동요집이 있다. 또한 유아교육지도서와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역사와 생활풍속 관련된 서적에는 박찬식·김동전이 2001년에 발행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¹⁵⁾ 그리고 2003년 발행된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¹⁶⁾ 2007년 최근에 발행된 『제주의 민속 문화, 제주인의 일생』이 있다.¹⁷⁾

제주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신화를 지나칠 수 없다. 또한 제주의 어머니상이 잘 나타나있는 제주신화로 2002년 발행된 김정숙의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을 참고하였고,¹⁸⁾ 1979년 성백인이 역주한 『만주 샤만 신가』(滿洲薩滿神歌, Nisan saman I bithe)속에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나오는 내용관련 유래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¹⁹⁾

민요와 관련된 자료로는 1979년에 발행된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²⁰⁾ 1982년 발행된 임동권의 『한국부요연구』,²¹⁾ 『한국의 민요』가 있으며,²²⁾ 1997년 발행된 좌혜경의 『한국 구연 민요(연구편)』,²³⁾ 1992년도 문화방송에

15) 박찬식·김동전, 『제주의 역사와 문화』(서울: 제주도, 제주민예총, 2001).

16)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제주민속연구소, 2003).

17) 현승환, 『제주의 민속 문화, 제주인의 일생』(서울: 국립 민속 박물관, 2007).

18)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제주: 각, 2002).

19) 성백인 역주, 『만주 샤만 신가=滿洲薩滿神歌, Nisan saman I bithe』(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1974).

20) 진성기, 『남국의 민요』(서울: 정음사, 1979).

21) 임동권, 『한국부요연구』(서울: 집문당, 1982).

22) _____, 『한국의 민요』(서울: 일지사, 1986).

23)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서울: 대한정판사, 1992).

서 발행한 『한국민요재전』이 활용되었다²⁴⁾.

제주도 자장가와 관련된 서적으로는 1992년 발행한 노동은의 『한국영아음악연구』,²⁵⁾ 1999년 발행된 윤치부의 『제주 전래동요사전』, 2009년 발행된 조영배의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제주 본도 창민요, 의식요, 자장가 편-』이 있다.²⁶⁾

『한국영아음악연구』은 1976년부터 65세 이상의 어머니들을 상대로 사라져가는 영아음악을 수집·기록·녹음하여 음악교육학적, 신경생리학적, 심리학적인 면까지 접근하여 영아음악의 중요성을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제주 본도 창민요, 의식요, 자장가 편-』은 제주도 자장가를 음악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제주민요의 음악적 접근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제주도 자장가의 유아수업 지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로는 2007년에 발행된 전인옥·이숙희의 『유아음악교육』,²⁷⁾ 2006년 발행된 전송배·모형오의 『유아국악교육-이론과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을 위하여 살펴본 자료집이다.²⁸⁾

『유아음악교육』은 유아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음악을 위한 음악성 발달, 음악환경 조성,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이론과 듣기와 감상, 노래, 악기, 신체표현, 음악창작을 통한 유아음악활동의 실제 등을 다루었다.

『유아국악교육-이론과 실제』는 유아국악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안이 수록 되어 유아국악 수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24) 좌혜경, 『한국 구연 민요(연구편)』(서울: 집문당, 1997).

25) 노동은, 앞의책.

26) 조영배,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제주 본도 창민요, 의식요, 자장가 편-』(서울: 민속원, 2009).

27) 전인옥·이숙희, 『유아음악교육』(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28) 전송배·모형오, 『유아국악교육-이론과실제』(서울: 양서원, 2006).

II. 제주도의 자장가 문화와 실태

1. 제주도 생활풍속과 출생 및 육아의례

제주는 한국 안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세기 초(1105년)까지 제주는 탐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형태를 유지 하였었다. 육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지방색과 방언이 있다고는 하여도 어느 정도 언어를 유추해서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제주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래도 전혀 추측조차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여 매우 생경한 느낌을 갖게 한다. 언어가 다르면 음악도 달라지고 문화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판소리 춘향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세와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의 말 뿐 만아니라 성격에서도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그 지역의 토속민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전해진다.²⁹⁾ 풍속 또한 사면이 모두 바다이면서도 농사를 중요시 여겼으며 바람이 많고 찰기 없는 땅에서 곡식을 수확을 위하여 남다른 개척정신과 공동체의식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는 중앙에서 떨어져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고립되어 지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가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불리한 생존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제주는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기원을 전후한 탐라국발생이후로 1105년(숙종10년)탐라국이 해체되어 고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어 약 100여년의 원의 통치 다시 고려에 이양과 고려를 대체한 조선의 지배 등 다분히 경제적 논리에서의 수탈과 정치

²⁹⁾ 김연수, 『창 본 춘향전』(서울: 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76), 66쪽.

적 거점으로서의 의미 일뿐이었다. 제주도민들은 어떤 나라가 지배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마을단위로 집결을 이루었다. 어떤 외부 권력이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공동체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체성은 마을 단위에서 군현단위로 또는 진도차원으로 신속히 확산 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식민지시대 제주지역에 아나키즘적 성향의 정서가 농후했던 것도 이러한 공동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⁰⁾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토속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어찌할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순응과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주도 역시 신화의 땅· 당 오백 절 오백의 이라고 불리 울 만큼 민간신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기후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제주인의 삶은 잦은 외세의 침입과 약탈까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억척스럽게 변모하였고 또 그래야 만이 생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의 신화는 세습무에 의해 전승되어 오긴 했으나 제주인의 사회양식에 대한 해석이다. 제주신화 속에는 제주선주민의 시초부터 그 내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제주도 신화는 당본풀이라는 무가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 당본풀이는 일단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제주도에 당본풀이가 전승되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현실 문맥적 기능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인접하고 있는 소수 민족 가운데 마을의 역사를 내세워 구비서사시로 부르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비서사시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민족에게서도 신화와 의례, 사제자와 신 및 청중 등이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다. 제주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단위의 마을 역사를 지키

30)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 제주도 민예총, 2001), 12쪽.

려고 힘쓰면서 신을 모시고 마을을 보호하려는 뜻 깊은 애정이 당본풀이로 표출된 것은 특이 할 만 한 사항이다.³¹⁾ 민속이라는 것이 전승이라는 맥을 가질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당제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마을마다 이어지고 있으므로 공동사회의 기능과 가치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인의 정서·역사·세계관을 알 수 있다.

유난히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외부인에 대하여 개방적이지 않는 제주인의 정서를 공감할 수 없었던 필자는 신화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신화의 “2단계 발달 구조론”에 기초해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 옛날에 집단이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억압되어 잠복된 상태로 무의식에 머물거나, 본능에 흡수되어 후대에 유전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과거에 골치 아픈 큰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른 채, 오랜 기간 큰 문제없이 지낸다. 그러다가 오래된 무의식을 자극하는 유사한 사건이 현대에 경우, 유전되고 잠복해있던 무의식은 거대한 힘과 묘한 모습으로 자체를 의식체계에 드러낸다. 그 민족의 정신과 정서는 강한 불균형, 불안상태에 처하며, 이를 해결해줄 강력한 ‘대상’을 열망하게 된다. 그때 영웅이 출현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한다. ³²⁾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기본 욕구는 농경의 여신인, 「세경본풀

31)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 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43-279쪽.

32) 이창재, 「한중일 영웅 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 136-141쪽 내용 요약.

이」의 ‘자칭비’를 탄생시킨다. 제주도에는 유난히도 여신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육지에서는 찾기 어려운 여신이 왜 제주도에서는 주축을 이루는 것일까? 대상 관계론자는 위기에 처한 아이를 품어주고 보호해주며 치유해주는 어머니 같은 조력자의 힘을 중요시한다. 개인과 민족에 따라 결핍된 요소와 대상이 다를 것이다. 어떤 민족에겐 성욕의 충족 보다 생존과 직결된 박해불안, 공격성의 위축, 자기애적 상처 등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그 경우 매력적인 상대상보다, 편안하게 돌봐주는 모성적(양육) 대상이나 ‘힘있는’ 동일시 대상을 조력자로 만나야,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영웅적 힘이 출현할 수 있다.³³⁾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을 어머니에 비유한다. 한라산 봉우리가 마치 어미의 젖무덤을 닮아있다고 여기고 영원한 모성을 갈구한다.

제주 풍속의 중심이 무속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으로부터 전해지는 국가적 이념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제주 풍속은 크게 삼교의 혼합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출산의례에 따른 의식은 육지와 비슷하여 유교적 영향권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성인남자는 바다에 고기잡이 나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 남자가 귀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기 위해서도 아들선호가 나타난다.

제주의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 어려웠다. 제주여성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미리 입혀져서 일 것이다. 그 설움은 제주민요 해녀 노 젓는 소리에 잘 나타나 있다.³⁴⁾

우리 어멍 어어 날 날 적에 에에
 가시나무 으으 몽그지에 예예
 손에꿍이 으으 박일랴고 예예

33) 위의 책, 125쪽.

34) 김영돈, 『제주의 민요』(서울: 민속원, 1999), 해녀노래(네 젓는 소리: 강순연·이명숙), 221-222쪽.

날났던가 헛
 이어도싸나 어허 이어싸 아아
 이어도싸나 어허 처라처라
 차라차라 잘도간다³⁵⁾

혼인을 하고 자식이 없을 때 심방을 불러 치르는 의례를 ‘불도맞이’라고 한다. ‘불도맞이’는 큰 굿의 일부로 치러지기도 하지만 자식을 얻기 위해 개별의례로 행하는 곳이다. 불도는 산신이며, 아이의 잉태, 출산을 관장하므로 불도맞이를 하면 자식을 잉태하여 순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명진국따님 아기는 이승으로 와서 삼승할망이 되어 ‘생불꽃’, ‘환생꽃’을 쥐어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잉태를 주고 해산을 시켜주는 해산의 신이다. 또한 출산 일이 되어 기미가 보이면 삼승할망을 부르는데 이는 관념적인 출산신이 아니라 마을 마다 조산에 익숙하고 유덕한 할머니를 뜻한다.³⁶⁾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는 출산 후 바로 할망상을 차리기도 하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수시로 할망상을 차리고 예를 갖추기도 한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산모와 아기를 위하여 미리 쑥을 준비하여둔다. 아이가 태어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첫 목욕을 시키는데 이때 쑥물을 이용해 아이와 산모가 목욕을 했다. 또한 물에 적신 삼베를 이용해서 아기 피부를 닦아주면 아이의 피부가 건강해진다 여겼다.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갈중의’로 감싸주는데 이는 남자의 하체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다. ‘갈중의’는 제주도 서민의 일종의 일상복이자 작업복이다. 무명옷에 풋감으로 물을 드려 매우 질기고 통풍이 잘되는 옷이다. 또한 갈색을 띠어서

35)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 사설에서 ‘어멍’은 우리 어머니, ‘날 날 적에’는 나를 낳을 적에, ‘몽그지’는 노손(櫓의 손잡이), ‘손에꿍이’는 손이나 발 등 많이 스치는 살갓에 생기는 굳은 덩이를 가리키는 ‘뭇’, ‘날났던가’는 나를 낳았던가를 각각 가리키는 제주도 방언이다.

36) 현승환, 「제주의 민속문화」, 『제주인의 일생』(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17-22쪽.

자주 세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졌다. 아버지가 입었던 ‘갈중의’는 아이 출산 시에 ‘짜게’로 쓰이고 이를 줄여서 아동복으로 입히기도 하였으며 기저귀에 이어 걸레로 까지 쓰였다. 제주인의 ‘조냥정신’(절약정신)을 엿 볼 수 있다. 현대의 부모들은 신생아에게 새것과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만 감싸줄려고 하는 것이 당연시되나 제주 인들은 세상의 첫 대면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통과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가 되면 ‘삼칠일 옷’ 또는 ‘세이레 옷’을 입힌다. 이 옷을 지역에 따라 ‘봇위창옷’·‘봇뒤적삼’·‘베옷’·‘삼칠일옷’·‘베창옷’이라고 하였으나 주로 ‘봇뒤창옷’으로 통칭되고 있다.³⁷⁾

‘봇’은 태(胎)요 ‘창옷’은 ‘홀두루마기’이니 ‘봇디창옷’이란 ‘봇의 창옷’에서 온 말로서, 태어난 어린 아기를 기저귀만 채우다가 잠옷 모양으로 입히는 두루마기 모양의 옷이란 뜻이다. 생후 사흘부터 대개 한 달까지 입힌다.³⁸⁾

이 옷은 시어머니가 마련한다. 곧 애의 할머니가 출산 직후 산모의 음식으로 쓰일 메밀기루, 미역들과 함께 마련해 오곤 한다. 남아의 옷은 팔의 길이가 길고 여아의 옷은 반소매로 옷 모양이 다르다. 현대와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미리 ‘봇디창옷’을 만들어 놓으면 사기가 낄 수 있다고 여겨 출산하자마자 이 옷을 만드는 게 관례이다. 이 옷은 태어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기를 쭉물로 목욕시키고 삼신상을 차릴 때 입히는 일종의 첫 의례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옷이 지니는 뜻은 대단히 크다³⁹⁾.

태어나서 사흘이 되면 아이는 애기구덕에 눕히게 된다. 제주여성들은 노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애기구덕은 생활필수품이었다. 아기는 이 애기구덕에서 보통 3세가 될 때 까지 자라게 된다.

제주도에서의 양육은 공동육아의 양상을 보인다. 어미가 물질을 나가면 아

37) 제주도, 『제주의 민속4, 의·식·주』(제주: 제주도, 1996), 34쪽.

38)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제주민속연구소, 2003), 71쪽.

39) 현승환, 앞의 책, 30-31쪽.

이의 아버지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노동에 있어서도 힘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 면은 공동작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나 그래도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 중심이었다.

보통의 제주여성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는 밭일을 하다가 물때가 되면 헤너가 되어 물질을 하러 바다에 나간다. 물질을 끝내고 귀가 하면 곡식을 빻는 절구질과 맷돌을 돌려 식사를 준비한다. 식수의 경우 밭일이나 물질 가기 전에 또는 다녀와서 물을 저 날랐으나 만약 물을 담아 놓은 물 항라에 물이 없어 이웃에게 빌리거나 하는 것을 여성의 큰 수치로 알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물 허벅을 메고 용천수에 물을 길러간다. 만약 이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아이를 목에 메고 그 먼 길을 생명수를 얻기 위해 다니기도 했다. 밤이 깊으면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바느질이나 양태 탕건을 만드는 일도 하였다.

바쁜 농사철에는 갓난아이를 둔 여성 일지라도 밭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까지도 아이를 데리고 가야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는 해도 온전히 아이와 함께 하지는 못하는 여건이 되어 아이는 절대자인 엄마를 독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제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게 되는 구조에 익숙해져야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동안 거쳐야 하는 것이 통과례이다. 보통은 출생의례·관례·혼례·상례로 순서를 밟는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새로운 문화의 질서를 습득하고 통합해 가는 과정이다.

오늘날에는 병원 출산 등으로 출생의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제주적인 독특한 출생의례는 시어머니가 출산비용을 감당한다거나 변형된 애기구덕을 사용하는 등으로 그 실마리를 이어가고 있다.

육아의례 중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넉들임’이다. 우리말의 ‘넉’을 제주말에서는 ‘넉’이라고 한다. 어린아이는 아직 머리 가마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넉이 그 가마를 통해서 나간다고 믿고 있다. 아이가 다친다거나 놀라는 일이 생기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어마, 선개(玄哥) 식 설(세살) 넉들라.”라는 말을 세 번하고, 물을 떠다 세 번에 나누어 떡이던 닳는다. 그래도 닳지 않으면 심방을 찾아가서 넉을 부르는데 요즘도 이어지고 있으며 무속의 형태가 실생활에 남아있는 육아의례 중 하나이다.⁴⁰⁾

40) 현용준, 앞의 책, 259쪽.

2.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 및 교육실태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과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먼저 제주의 지역성이 사설로 드러난 자장가 형태와 전국분포의 자장가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 구분을 전국분포의 자장가인 경우는 A형, 제주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는 B형으로 구분하여 이제 그 전승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려고 한다.⁴¹⁾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총 115편의 자장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자장가의 사설이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A형의 경우에는 나라에는 충성 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일가방상 화목동이 등 유교사상의 내용이 31.30%로 나타났다. B형의 경우를 보면 제주지역성이 드러난 ‘개를 천지 소에 드리치다 내치다’, ‘할마님이 공든 즈순 어진애기 잘 재와 줍서’등 제주자장가에서 만 나타나는 내용이다. 전체의 68.70%를 차지한다.

[1] 우리애긴	잘도잔다
부모에도	소즈동아
일가에도	화목동아
동네어른	인심동아
나라에는	충성동아
비즈낭엔	비즈동아
옥즈낭엔	옥즈동아 ⁴²⁾

[2] 자랑자랑	웁이자랑
저레가는	저검등개
우리야기	재와도라
느네야기	재와주마
우리야기	아니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베로

41) 윤치부, 「제주도 자장가의 유형」,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26~46쪽 내용 요약.

4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서울: 일조각, 1995), 414쪽.

손모가지	발모가지	걸러매영
지픈지픈	천지소래	
드리챿닥	내챿닥	혈고로나
윙이윙이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⁴³⁾	

제주지역의 전형적인 자장가에 육지로부터 조선조의 유교사상이 유입되었으며, 어느 한 지역에서 한 가지 유형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제주전 지역에 전반적으로 두 유형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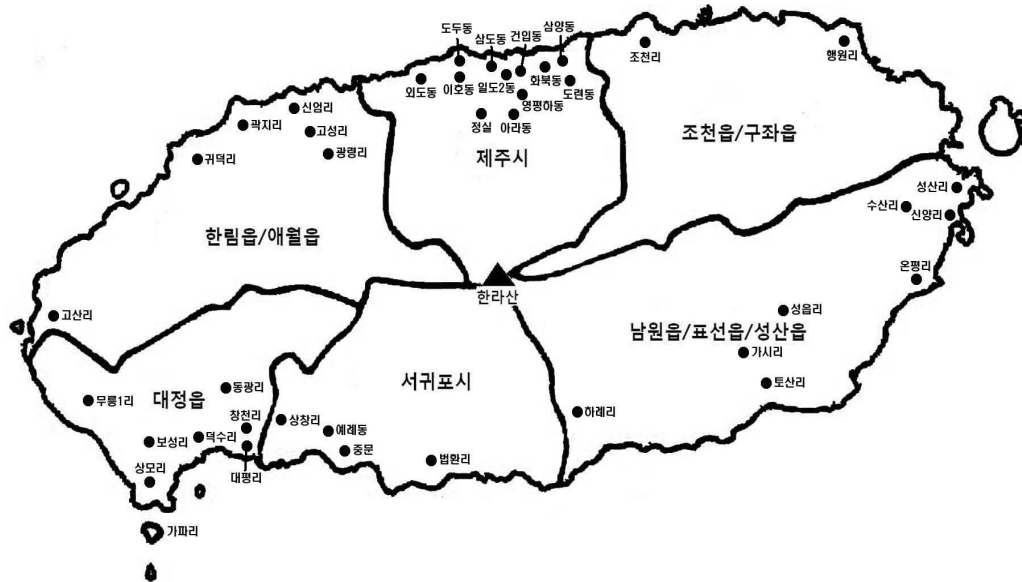
선행연구자가 조사한 80년대 중반이후의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되는 노래인 자장가는 자신이 듣던 자장가를 아이에게 불러주어 전승된다. 현재 제주도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떤 자장가를 불러주고 들려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육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의 수면시간에 들려주는 음악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제주도 육아문화에서 자장가는 어떻게 전승되고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주도를 크게 두 지역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제주시의 5개 어린이 집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남제주군의 경우에는 서귀포시 3개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과 교육 실태를 조사 하였다. 학부모 총 참여 인원은 213명이고 교사의 참여인원은 49명이다.

43)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서울: 대한정판사, 1992), 344쪽.

<그림 1 > 90년대 이후의 자장가 분포도⁴⁴⁾



조사대상 유아들의 부모의 연령은 30~40대 사이가 75.59 %를 차지한다. 학교교육 환경에서 서양음악에 절대적 영향권에 있었던 세대들이다. 유아들이 잠들 때 들려주는 음악은 동요 · 클래식 · 전래동요 · 기타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동화를 들려준다가 5.2%,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다가 8.6% 영어노래를 틀어준다는 대답도 1.9% 그리고 종교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획일화된 학교교육의 영향도 있겠으며 그 만큼 음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부모들은 부모에게서 자장가를 듣고 자랐느냐에 59.62%가 답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려주었느냐는 질문에는 불러주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의 53.52%로 나타났으며 아니요 라는 대답은 46.48%였다.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제주도 지역 아이들에게 전승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자주 들려주었다고 대답한 경

44) 1990년대 이후의 채록된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도표는 부록을 참고.

우는 전체의 11.7%에 불과 하였다.

현재 부모가 아이들에게 불러 주는 자장가는 섬 집 아이 · 자장가 · 모짜르트 자장가 · 윙이자랑 · 슈베르트 자장가 순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들려주는 음악은 클래식이 79.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육아와 관련하여 애기구덕이나 제주도 자장가 「윙이자랑」을 알고는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선택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도 자장가 「윙이자랑」이 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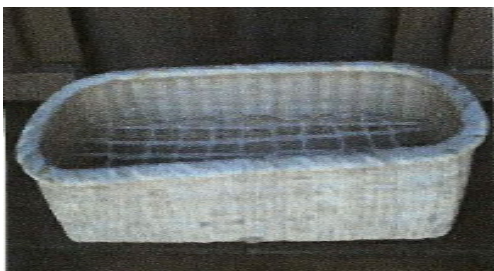
현재 제주인의 일상에서 민요가 사라지고 가격들에 의해서만 보전되는 정도에 머물러있는 것과 같이 제주도 자장가 「윙이자랑」도 육아교육 현장이나 가정육아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 자장가는 클래식과 동요가 대체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기를 재울 때 사용했던 애기구덕은 변형된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 육아문화에서 애기구덕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기구덕’은 흔히 몽골에서 전파해 온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중국의 장쑤성 출신인 평웨이에 따르면 남중국에서 대나무를 기르는 집에서는 제주도의 ‘아기구덕’과 같이 만들어 아기를 키운다고 한다. 이 제보를 참고하면 애기구덕은 디베트와 남중국에 퍼져 있던 민속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여 무리가 없다.

45)

<그림 2 >

전통 방식의 애기구덕



변형된 애기구덕



4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86쪽.

‘애기구덕’은 아기를 눕혀 재우는 요람이다. ‘구덕’이란 대바구니를 말한다. 대나무로 깎아 삼동나무로 테를 잡고 길다랗게 엮어 만든 일종의 바구니이다.⁴⁶⁾ 제주도 아이들은 거의 모든 아이가 이 애기구덕에서 자라났다. 육아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제주의 어머니들은 이동하기 쉽고 아이를 보호 할 수도 있는 애기구덕을 고안해 낸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흘이 되면 애기구덕에 눕히게 되고 보통 세 살이 될 때 까지 애기구덕에서 자라게 된다.

90년대 이후의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장가를 보유한 고령의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핵가족화와 산업화, 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와 다양성속에서 다음세대로의 지속적인 전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후 1개월부터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양육의 많은 부분을 유아보육 ·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기관의 철학이나 교육이념 교사들의 프로그램 선택 등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승하고자 한다면 가정에서 엄마품안의 교육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지도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46)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1』 (서울: 열화당, 1986), 61쪽.

Ⅲ.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음악 교육적 특성

1. 「왕이자랑」의 음악적 특성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은 제주 민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장가라 하면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아이를 위한 어른들의 노래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아이를 업거나 안거나 뉘여서 자장가를 불러 주는데 제주도에서는 아이를 재울 때 애기구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애기구덕에 아이를 넣고 흔들어서 재우면서 부르는 노래가 「왕이자랑」이다. 애기구덕을 흔드는 신체동작에 수반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는 노래이다. 그만큼 이 민요는 애기구덕을 앞뒤로 흔드는 일정한 신체동작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⁴⁷⁾

먼저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일과 밭일, 물도 길어야 하는 바쁜 일상에 아기가 빨리 자주길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아기에게 어서 자라고 타이르다가 아기가 그래도 잠이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검둥개에게 우리 아기 재와주면 너네 애기 재와 준다고 타협을 한다. 그래도 아기가 잠투정을 하면 검둥개에게 짚고짚은 천지소에 들이쳤다 내쳤다 할 거라고 협박한다. 자지 않는 아이 때문에 검둥개나 삼승 할마님에게라도 아이의 잠을 요청하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아이를 흔내는 내용까지 나타난다. ⁴⁸⁾

자랑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아래랑	옥돌ㄴ똥 나이기
가마귀	젓놀개ㄴ똥 나이기
어서자랑	어서자랑

[어~기여기여기여 흔저자라 어진할마님 애기재와줍서]

47) 조영배, 『태초에노래가있었다.』, 138쪽.

48)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앞의책, 205쪽.

. . . (중략) . . .
 우리아기 재와도라
 뉘의아기 자는소리 뉘이자랑
 아니재와 주당
 질긴질긴 총배로 걸려다근
 지픈지픈 천지소에
 득이췌탁 내췌탁
 . . . (중략) . . .

[어~기여기여 어떻흐난 원조를 기영 못 잠시니게 원] 49)

자장가에서 검둥개와 닭의 출현은 다른 지방 자장가와 일반이나 제주도 자장가 「뉘이자랑」에서의 검둥개는 제주도 민간설화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감림차사가 원님의 명을 받고 저승의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감림차사가 저승을 향해 가는데 커다란 연못이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가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어디서인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감림의 옷깃을 물고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감림차사는 저승의 염라대왕을 만나고 오게 되는 장면이 있다. 제주도 민속에서는 저승의 의식세계를 인도하는 것으로 흰 강아지가 등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승의 의식세계에서는 검은 강아지, 곧 검둥개가 나타나고 있다.⁵⁰⁾ 후렴구에 나타나는 뉘이자랑 뉘이자랑을 제주도에서는 애기구덕을 왕의자리로 인식하였으나 만주샤만신가(滿洲薩滿神歌)에서는 저승에 있는 개와 닭을 불러낼 때 부르는 말이 바로 ‘어리어리’(eri eri)이자 구구(gu gu)이었다. 말하자면 이승과 저승, 눈뜸과 눈감음 사이에 검둥개와 닭은 안내하는 존귀한 존재이다.⁵¹⁾

이 처럼 자장가는 어머니의 참사랑이 담긴 일종의 주술적인 노래이기도 한 만큼 젓먹이 아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잠을 포근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²⁾

49) 제주도 남원읍 하례리 민요, 애기 흥그는 소리에서 ‘젓놀개구뜯’은 어린날개(?)의 제주도 방언이다.

50)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 143쪽.

51) 노동은, 『한국음악교육론』 (한국음악연구소, 2010), 35쪽.

52) 진성기, 앞의책, 63쪽.

김주옥 (55) 제주도

자장가에 대한 음악적 특징에 관해서는 제주도 민요의 특성을 12/8박자의 고정박자로 구조화 된 것이 많은데다 3음 음계적인 계면조(界面調)의 조직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근간을 영아기에 체득한 음악<구조적 불의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⁵⁴⁾

연행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에 애기구덕을 흔드는 동작은,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으로 이루어지며, 그 반복주기가 매우 규칙적이다. 물론 중간 중간에 1/4박이 끼어들어 3/4 또는 5/4박자처럼 한 박자가 밀리는 형태로 바뀐 후에 다시 2박자나 4박자로 안정되는 형태로 가창되기도 한다.⁵⁵⁾

선법과 관련한 이론에는 조영배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형은 도선법[도레미(파)솔라도레]로 가락을 전개하면서[미]음과[파]음이 서로 변창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임시 변화음

53) 노동은, 『한국영아음악연구』, 179쪽.

54) 위의 책, 119쪽.

55) 조영배, 『태초에 노래가있었다』, 138쪽.

으로 본질적인 전조현상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종지음은 도이다. 제2형의 경우도 # 선법[도 # 레미솔]로 제주만의 특징적인 선법이라 할 수 있다. 종지음도 도 #이다. 제3형은 라선법[라도미솔]로 제주적이라 할 수 있다. [레]음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제주 라선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종지음은 라로 1음절 1박의 사설처리도 자주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56)

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자장가 중 3소박이 50%이며 2소박은 강원지역을 제외한 메나리토리권과 제주지역에 만 보인다고 하였다. 선법에 따른 분류는 다른지역 자장가에서 보이지 않는 레선법과 라선법이 특징이고 도선법은 충북과 전북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57)

제주도의 민요에는 특별히 장단 이라는 것이 없다고 들 한다. 이는 현무암의 토질의 특성상 논농사가 발달하지 않은 영향이기도 하다. 또한 육지와 달리 풍물놀이와 같은 악기가 발달해 있지 않고 서민생활에서 흥이나면 그저 생활도구인 허벅을 치거나 그릇에 엽전같은 것을 넣어 부딪쳐서 소리를 내는 정도이니 말이다. 연물과 같은 제주의 악기는 신물로 신방들의 것이고 서민들은 거리가 멀어서 굳이 장단은 큰 의미가 없었으리라.

중산 촌에는 음력 6월절 전후 3일안에 말뚝을 몰아 씨앗 뿌린 밭을 모두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 십상이다. 밭 밟는 말의 일 거수 일 투족은 모두 감시의 대상이다. 조금이라도 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선율은 높은 음역의 소리로 변하여 끝없이 길어진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래에 사설을 매길 때야 말로 순조롭게 밭 밟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이다. 이처럼 밭 밟는 노래는 자유리듬으로 되어있는 노래이다. 물론 선후창 방식의 ‘방앗돌 끄어 내리는 소리’, ‘행상소리’와 같은 노래에는 규칙적인 집단 노동에 따른 박자가 생겼을 것이다.58)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은 혼자 부르는 독창방식이다.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부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신체동작의 제약을 받기는 하나 창자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박자의 변화가 가능하다. 채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채보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도 나타나고 연출된 가창으로 그때그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국민요대전을 집필한 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제작비의 지원과 시간적 여건이 마련되어 최대한 노동의 현장에서 채보하려 했던 점이 들어나

56) 위의 책, 427쪽.

57) 명현, 「자장가의지역적분포에따른음악적특징연구」,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2005) 86쪽.

58)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앞의 책, 15쪽.

개인적인 연구는 방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필자와 도평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애기구덕과 허벅을 가지고 도평 마을 복지관에 모여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서 애기구덕을 직접 제공하였다. 할머니들께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무척 반기시더니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불러주셨다. 가능하다면 노래만 녹음기에 담기 보다는 노동 현장, 또는 생활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부르는 민요를 채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노동현장 속에서도 민요가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제주도의 민요연구는 구비문학에서 문학적 연구가 활발하다. 반면 음악적 연구는 전국 민요연구 중 극히 필요한 부분을 몇 군데서 채보하여 정형화 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지에서 생활하는 학자인 조영배의 경우에도 제주도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정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은 있으나 확실한 이론적 근거 역시 미흡하다. 이는 앞으로 어느 한 학자에 의견에 의존함이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 따야 할 것이다.

2. 「왕이자랑」의 교육적 특성

유아기는 음악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들에게 음악은 언어처럼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⁵⁹⁾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조기교육은 음악교육이고 음악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유아기보다 앞선 영아기(嬰兒期)는 통상 ‘태어나면서 돌 전후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아기들이 저절로 성장할 것이니 방치해도 좋을 시기가 아니다. 영아기야 말로 “아기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숙의 시기”가 아니다. 이 시기가 말로 한 삶으로서 자아가 확립되느냐 안되느냐, 또 한국인다움이 형성되느냐 안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⁶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조상들은 태교를 통하여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선견하였다. 딱히 태어난 아이에게 음악교육이 필요해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자장가를 통해서 민족고

59) 전인옥 · 이숙희 『유아음악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6쪽.

60) 노동은 『한국음악교육론』 (서울: 한국음악연구소, 2010) 25쪽.

유의 정서와 모국어를 익히고 일정한 박자를 체득하게 되어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으로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 삶의 양식을 전달한다. 자장가는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음악이며 음악교육의 시초인 것이다.

대표적인 문화맥락주의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가지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하였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대상뿐 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들 간의 관계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⁶¹⁾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 또는 미시체계에 속하는 마을 주민,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례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여기에 신참자로 태어난 영아(嬰兒)에게 자신이 생존할 문화권의 생활양식에 적응토록 음악문화로 학습시키고 사회화시키고, 또 아기로 하여금 그 문화권의 모든 것에 신뢰감을 형성시킨 부녀자들의 음악인 한국영아 음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⁶²⁾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아기와 유아기에 습득한 음악적 양식, 즉 자장가는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체계로 확장되면서 아동기의 동요로 성인이 되어서는 민요로 더 나아가 판소리등과 같이 포괄적 음악을 향유하게 되고 민족고유의 음악 문화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하여 우리는 서양음악의 슈베르트나 모차르트의 자장가에 앞서 우리 민족 더 깊게는 그 지역의 자장가를 회복시키고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음악의 근간이 이 자장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로 하여금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징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왕이자랑」의 내용 속 제주만의 고유한 언어가 가진 힘을 인식하고 정체

61) 이소은·이순영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50쪽.

62) 노동은, 『한국영아음악연구』, 앞의 책, 23쪽.

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생명존중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10단계의 지도안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적용 하였다. 2007년도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의 표현 생활영역에 따르면 “음악적 기초의 확립” “창의성 개발” “미술, 음악, 동작, 극놀이와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포함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생활 개정의 중점은 통합성을 강조하고 예술적 경험의 과정이나 개별적 느낌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통예술에 친숙해지기”를 “전통예술 즐기기”로 확대하고 초등교육과정의 “즐거운 생활” 및 예술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⁶³⁾

자장가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음악이며 자장가에 담겨진 문학과 음악적 특징은 음악적 기초 확립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체득해야할 음악임에 틀림없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프로젝트에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것으로 3단계 놀이와 표현 단계에서 애기구덕 옮기기 놀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아이가 깨지 않게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아이들을 잠 못 들게 할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하였다. 4단계의 조형 활동은 제주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입는 ‘뽀디창옷’을 만들어보고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어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미술, 음악, 동작의 경우에는 미술활동은 ‘뽀디창옷’ 만들기, 허벅만들기, 음악은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배우기, 허벅장단 연주하기 활동을 하였으며, 동작 활동으로는 애기구덕 흔들어보기, 허벅 춤추기를 포함하였다.

놀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애기구덕 옮기기, 물허벅에 팔죽 담아 나르기를 편성하

63) 전송배, 『유아음악교육론』 (한국아동음악교육협회, 2010) 10쪽.

였으며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여 ‘자랑자랑 똥이 자랑’ 극 놀이를 통하여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독창적 문화인 제주의 애기구덕, 허벅장단, 허벅 춤을 도입하여 지역문화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친해지며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무리 단계로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만나 그제 아이들의 재롱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주도 자장가 「똥이 자랑」을 진수 받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총 10단계로 구성된 제주도 자장가 「똥이 자랑」 학습지도안을 통하여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표현 생활영역의 개정의 중점을 둔 교육적 특성을 살려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 적용하였다.

IV. 「왕이자랑」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왕이자랑」을 활용한 단계적 과정은 1차시에서 유아들이 알고 있는 자장가를 알아보고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비교 감상한다. 2차시에서는 표준말에 익숙해진 유아들에게 제주도의 고유 언어를 이해하고 내용을 알고 노래를 배우도록 한다. 3차시는 아기를 채울 때 사용했던 애기구덕을 탐색하고 직접 흔들면서 자장가를 부르는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표 1> 「왕이자랑」의 활동 계획안

	단계적 지도법	제목	지도내용
1차시	• 감상 단계	• 「왕이자랑」 감상하기.	.유아들이 일상에서 들었던 자장가를 알아보고 「왕이자랑」 감상과 이야기 나누기, 주제 땅을 완성 한다.
2차시	• 노래 부르기	• 「왕이자랑」 노래 배우기.	.제주도 방언 알아보기. 「왕이자랑」 노래 배우기.
3차시	• 놀이와 표현	• 애기구덕	.애기구덕 탐색하기. 유아들이 직접 애기구덕을 흔들어보고 친구에게 자장가 불러주기.
4차시	• 조형 활동	• 붓디창옷 만들어 보기.	.어진이 그리고 이름지어주기 .붓디창옷 만들어 입히기
5차시	• 장단교육2-1	• 허벅 장단	.물 허벅의 쓰임새 알아보기. 물 허벅 장단 만들기.
6차시	• 장단교육2-2	• 허벅 장단	. 「왕이자랑」에 맞춰 허벅 장단 치기.
7차시	• 놀이와 표현	• 팔죽 담아 나르기 놀이	.제주민속의 사돈집에 상이 나면 물 허벅에 팔죽을 담아 부조했던 풍습을 놀이화한다.
8차시	• 동작 활동	• 물 허벅 춤	.물 길러 온 제주여인들이 모여앉아 노래도하고 춤도 추었던 풍경을 물 허벅 춤으로 재구성 하여 배워본다.

9차시	• 통합 단계	• 역할극	. 「왕이자랑」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정해서 극 놀이를 한다.
10차시	• 발표와 구전	• 공유하기	.동네 어르신들 자장가를 직접 무릎에서 들어보고 함께하는 시간. 역할극 발표하기.

4차시는 애기구덕을 만들어보는 조형 활동 시간이며, 5·6차시는 허벅을 이용하여 「왕이자랑」 노래의 장단을 알아본다. 7차시는 허벅에 담긴 고유 품을 놀이화 해 본다. 8차시는 허벅 춤을 통하여 가·무·악의 국악적 접근을 시도한다. 9차시는 제주도 육아문화를 토대로 한 역할극 속에서 조상들의 삶을 경험하고 「왕이자랑」 자장가의 의미를 내면화 한다. 10차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왕이자랑」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전심수의 기회를 갖는다.

1. 「왕이자랑」 교수-학습지도안

1단계는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추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유아들에게 자장가의 개념을 알게 하고 어떤 자장가가 있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발표하는 자장가를 모두 수용하고 다양한 자장가를 불러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유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려주고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장가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해보고 주제 망을 완성 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주제 망을 만들 때에는 개방적 질문을 통해 유아들의 사고가 확장되도록 격려한다. 조손 부모가정이나 편부모 유아들의 경우를 고려하여 자장가가 엄마만 불러주는 노래 여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자장가가 어떤 노래인지 또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알게 되었는지 평가해 보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고 정리하도록 한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왕이자랑」 감상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왕이자랑」 감상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첫 단계로서 자장가는 언제 부르는 노래인지, 왜 불러 주는지 이야기 나눈다. 유아들이 잠들 때 들었던 자장가를 발표해 보고 불러도 본다. 제주도 아이들이 잠들면서 들었던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노래도 듣고 느낌 점을 말해본다.

<표 2> 감상단계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단계	제주도 「왕이자랑」 감상		대상	만5세	차시	1차시	시간	30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자장가임을 알 수 있다. - 우리 고장 자장가 「왕이자랑」을 알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적 감지	미적 자극	동기 유발	교사	유아	4-5	.장구, 장구채 .한국민요대전 제주민요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예쁘다 노래 부르기 예쁘다 예쁘다 예쁘고 예쁘다. 귀하다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은 예쁘다 ○○은 귀하다. 안녕 친구들.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쁘다 노래 부르며 자기자리에 앉는다. • 바른 자세로 앉아 음악을 감상한다. 				
음악	지각	노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이 들 때 불러주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본다. • 유아들이 알고 있는 자장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는 자장가를 말해본다. • 선생님 따라 자장가를 불러본다. 	7-8	.교사의 목소리로도 직접 들려준다.		

음 악	지 각 반 응	노 래 의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발표하는 자장가를 불러준다. -따라서 불러 보도록 한다. -자장가의 종류를 알아본다. • 우리고장 제주의 자장가가 있음을 알아본다.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감상하고 경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후렴 부분을 따라서 불러본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왕이 왕이자랑 자랑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에 들던 자장가와 선생님이 들려주는 자장가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한다. •제주도 자장가와 다른 자장가의 차이점을 말해본다. 	7-8	.유아들이 알고 있는 자장가를 조금씩이라도 불러 보고 유아들이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망 완성하기 - 유아들이 자장가하면 생각나는 것을 주제 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질문1: 엄마가 친구들을 재워 주실 때 어떤 노래를 불러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2: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재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엮어서 재웠을까? 뉘어서 재웠을까? 아니면 애기구덕에서 흔들어주 질문3:엄마 말고 다른 누군가 나를 재워준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4: 옛날 제주도 아이들은 어떻게 잠들었을까? 질문5: 나는 잠이 들 때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을 말해본다. •주제 망을 완성한다. • 유아가 잠이 들 때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10-12	.전지, 네임펜 .유아들이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하고 .주제 망을 작성하도록 질문을 통해 동기 부여한다. .확장활동으로 이어서 진행한다.

행 위	표 현	그 리 기	<p>떨해 주면 기분 좋게 꿈나라로 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했던 일 그림으로 표현하기. 해 주면 기분 좋게 꿈나라로 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 경험 했던 일 그림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잠이 들 때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10-12	기 부여한다. .확장활동으로 이어서 진행한다.
		개 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가의 쓰임을 안다.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가는 어떤 노래인지 말해본다. • 우리 지역 자장가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본다. 	2-3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한다.
가 치 화	가 치 판 단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가의 쓰임을 잘 이해 하는가를 평가한다.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아는가를 평가한다. 		2-3	.유아들의 학습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자장가의 개념을 확인하고 유아들이 어떤 자장가를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제주도 자장가를 감상하고 다른 자장가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주제망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제주도 자장가의 대한 인식을 토대로 2차시의 「왕이자랑」의 노래 익히기로 연계한다.

2)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2단계 교수학습지도안의 중심 목표는 「왕이자랑」 노래를 익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랫말 속 제주도 방언을 알아보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김주옥의 「왕이자랑」과 조영배가 채보한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을 들려주고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였다. 처음 들려주었던 김주옥의 「왕이자랑」은 아

이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을 검둥개 탓이라고 여기고 만일 재와 주지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형식을 풀어 주었다,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
의 내용은 아이를 향한 축원과 바람이 담겨져 있음을 알도록 하였다.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화북동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를 채택하였다.

<표 3 >노래 부르기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수업 단계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		대상	만5세	차시	2차시	시간	30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부를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4-5	.장구, 장구채 •바른자세 유아에게 기회를 먼저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인사 수빈 쿵덕쿵 범진 쿵덕쿵 우리 좋은 친구 • 지난 시간에 들었던 「왕이자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어제 밤에 어떤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밤에 자장가를 듣고 잠든 친구의 얘기를 듣는다. 				
	지 각 반 응	노 래 의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노래 내용 알아본다. • 노랫말에 나오는 제주방언에 대해 안다. • 다른 내용의 「왕이자랑」을 살펴본다. • 노랫말 익힌다.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조상들이 아기를 재울 때 아기에게 칭찬. 바람등을 노래한 것을 안다. 	7-8	.전체 내용에 대하여 드라마로 접근한다.		

음 악 미 적 행 위	창 의 적 표 현	노 래 배 우 기	<p>웁이도 자랑아 자랑자랑 어서자라 돈밥먹영 키와줍서 돈물멕 영 키와줍서 나라에는 충신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누영 잠을 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과 발성을 하여 분다. - 코로 숨 들이쉬고 꼭 참고 들판소리 아~ 코로 숨 들이쉬고 꼭 참고 해저 이만리 아 코로 숨 들이쉬고 꼭 참고 우주 끝까지 아~ 코로 숨 들이쉬고 꼭 참고 어린이집을 돌아옵니다. 아~ • 선생님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 장구 장단에 맞춰 불러본다. • 실생활에 맞는 가사로 바꿔서 불러본다. <p>-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웁이웁이자랑 웁이도 자랑아 자랑자랑 어서자라</p> <p>○○떡영 키와줍서 ○○멕영 키와줍서 우리집엔 ○○○○ 친구끼리 ○○○○ 선생님께 ○○○○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누영 잠을 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호흡 발성한다. • 교사의 시범 창을 듣고 한 마디씩 따라 부른다. • 두 마디씩 따라 부른다. • 네 마디씩 따라 부른다. •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을 깬 적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10- 12	.유아들의 실 생활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가사 바꾸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 박에 박수치며 부른다. / / / / 왕이 자랑 자랑 자랑 무릎을 토닥이면서 불러본다.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투명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장가가 아이를 위한 축복 송임을 안다 	.자장가가 평온하고 느린 음악을 안다.	2-3	
가치화	가치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 바꿔 부르기 활동지를 통해 평가한다. 		2-3	

7차교육과정의 표현생활영역 중 음악부분에 따른 1차시의 감상과 2차시의 노래 부르기, 가사 바꿔 부르기를 통해 제주어와 익숙해지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가사를 먼저 알고 난 후 3차시의 제주도 생활도구 애기구덕의 등장을 위한 사전 단계이다.

3) 「왕이자랑」 놀이와 표현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제주도 육아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애기구덕을 유아들이 탐색하여 구조와 쓰임새 등을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과 너와 내가 모두 귀한 존재임을 느껴보는 동작영역에 속하는 시간이다. 현재 애기구덕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는 사라진 상황이지만 개량된 애기구덕을 사용하는 가정은 많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애기구덕을 그림 자료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우선 유아들로 하여금 아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주도 자장가를 불러주도록 한 다음 친구를 무릎에 누이고 가슴을 토닥이면서 제주도 자장가를 불러주도록 하였다. 노랫말

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도록 하였다. 인원이 홀수여서 한 친구는 두 아이를 양쪽 무릎에 누이고 두 손으로 두 아이를 토닥여 주었다. 교사는 “아이고 미정이 아줌마는 쌍둥이를 두셨구나!” 라고 지지해 주었다. 재미있게도 누운 아이들은 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머니 역할을 맡은 아이는 어머니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역할을 바꿔서 해본 후 교사의 장단에 맞춰 애기구덕을 빠르게도 흔들어보고 느리게도 흔들어보면서 아이가 잘 잠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표해보았다.

유아들을 두 팀으로 나눈 뒤 애기구덕을 각 팀에 하나씩 나누어 주고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애기구덕을 안방으로 옮기는 놀이를 해보았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어떤 팀이 빠르냐가 아닌 어느 팀이 아이를 가장 소중하고 안전하게 옮기느냐가 관건임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표 4 > 놀이와 표현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단계	「왕이자랑」 놀이와 표현		대상	만5세	차시	3차시	시간	30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자장가를 부른다. - 친구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4-5	.장구, 장구채 .자유 활동시간에 유아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이야기 나눌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p>하면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어보고 아이도 되어서 놀았던 적 있었나요? ● 사랑 노래 사랑 사랑 내 친구 개똥이 내 사랑 내 친구 개똥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 열쭉 ● 친구들과 소꿉장난 하였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노래 말에 옆 친구의 이름을 담아서 불러본다. ● 자유 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소꿉놀이 했던 경험을 말해 본다. 				

	지각 반응	탐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기를 재울 때 사용했던 제주도 생활도구 인 애기구덕을 탐색하고 직접 흔들어 본다. • 애기구덕은 어떻게 흔들었을 때 아기가 편안히 잠 들 수 있을지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기구덕을 일상에서 본 적이 있는지 말해본다. •요즘 사용하는 제주도 애기구덕과의 차이점을 안다. 	5-6	.여러 가지 아기 침구 그림 자료(옛날과 오늘, 육지와 제주도)
음악미적	창의적	신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 가사 바꿔 불러본다. • 투명아기를 안고 아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왕이자랑」을 불러본다. • 친구를 무릎에 누이고 「왕이자랑」을 불러본다. • 교대로 바꿔서 불러본다. • 아기가 잠들었을 때 깨지 않게 조용히 걸어본다. • 「왕이자랑」노래에 맞춰 애기구덕을 흔들어 본다. •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다른 일을 하였던 조상들의 모습을 흉내 내어 본다. <p>-바느질하기 -신문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기구덕 옮기기 놀이 -두 친구가 한 짝이 되어 두 팀으로 나눈 뒤 애기구덕을 들고 발자국 소리 나지 않게 반환점 돌아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한 가사로 바꿔서 불러본다. •아기를 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장가를 불러준다. •친구에게 사랑스런 마음으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 「왕이자랑」CD 들으며 애기구덕을 흔들어 본다. •노래 부르면서 애기구덕 흔들어보기. •바쁜 부모님의 일상을 알아보고,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본다. • 짝이 된 친구와 애기구덕 조용히 옮겨본다. 	6-8	.애기구덕 2개 .가사와 그림 자료. . 친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행 위	표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기구덕 뱃놀이 -선생님의 장단 빠르기에 맞춰 애기구덕 흔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의 장구 장단에 맞춰 느리게 빠르게 흔들어보기 (뱃놀이) 	6-8	.애기구덕을 옮길 때 조용히 걷도록 주의시킨다.
	현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내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2-3	.신체표현 활동 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의시킨다
가치화	가치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바꿔 부르기 활동지를 통해 평가한다. 		2-3	

그동안 유아들이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매우 동적인 활동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애기구덕 옮기기 놀이를 하면서는 서열이나 등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정적인 활동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사는 자칫 지루해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어머 예찬이는 참 좋은 아빠가 될 것 같구나”하는 등으로 지지 한다. 유아들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너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나아가 좋은 부모가 되는 씨앗을 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V. 사전-사후 검증

1. 평가 내용과 방법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체계적 국악교육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7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표현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프로그램을 10차시로 마련하였다. 제주시 도평 어린이집 1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도 생활도구의 대한 체험과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와 만족도를 설문조사 하였다.

2. 사전 · 사후 검사 비교

1)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대한 인식변화

<표 5 >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대한 인식변화

N=17

문항	내용	전	%	후	%
1. 자장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1. 예	7	41	16	94
	2. 아니요	10	59	1	6
2. 어떤 자장가를 들어보았니?	1. 자장가	9	53	7	41
	2. 왕이 자랑	5	29	16	94
	3. 섬집아기	11	65	10	59
	4. 모짜르트 자장가	8	47	10	59
	5. 슈베르트 자장가	9	53	11	65
3. 자장가는 누가 불러주었니?	1. 엄마	12	71		
	2. 아빠	5	29		
	3. 할머니	7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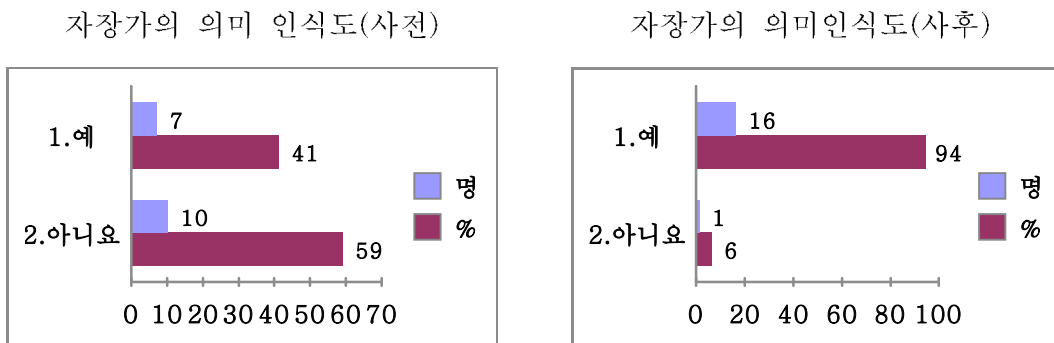
	4.기타	6	35		
4.제주도 애기구덕의 쓰임새를 알고 있니?	1.예	3	18	17	100
	2.아니요	8	47	·	
5.제주도 물허벅의 쓰임새를 알고 있니?	1.예	5	29	15	88
	2.아니요	12	71	2	12
6.어떤 것이 재미있었니?	1.애기구덕 흔들면서 왕이자랑 노래부르기			5	29
	2.봇디창옷 만들기			1	6
	3.허벅장단, 춤추기			4	24
	4.동극			4	24
	5.마을어르신들에게 왕이자랑 들어보기.			3	18
7.왕이자랑을 집에서 불러달라고 한 적 있니?	1.예			6	35
	2.아니요			11	65
8.집에 가서 배운 것을 해 본적이 있니?	1.예			8	47
	2.아니요			9	53
9.잠들 때 왕이자랑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니?	1.예			10	59
	2.아니요			7	42
10.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왕이자랑」을 들려줄 거니?	1.예			16	94
	2.아니요			1	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검사 만 이루어진 것은 3번의 누가 자장가를 불러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이고 사후검사 만이 이루어진 것은 6,7,8,9,10번이다.

2) 설문조사 세부 분석

가. 자장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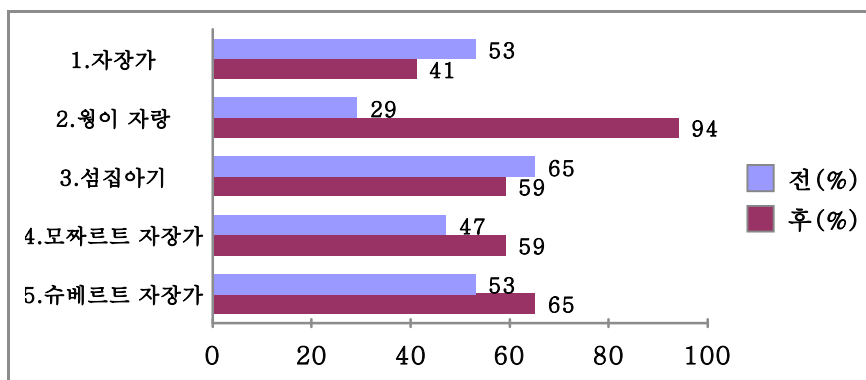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전후의 유아들의 자장가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엔 단순히 자장가가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이 자장가의 기능과 노랫말 속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사후 검사에는 53%의 증가 치수를 보인다.

나. 어떤 자장가 들어 보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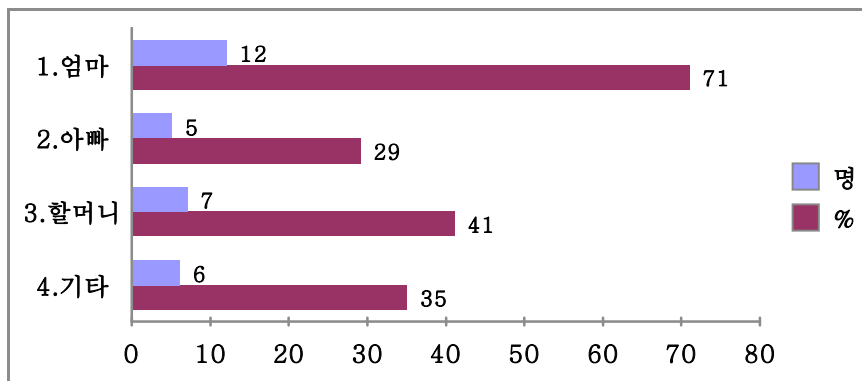
<그림 4> 자장가의 가창 선호도



유아들이 알고 있는 자장가는 5개 정도였고, 삼집아기·자장가 슈베르트·자장가·모차르트 그리고 「왕이자랑」 순이었다. 사전 검사에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어본 아이는 12%였으나 사후 검증에서는 100%의 아이들이 알게 되었다.

다. 자장가는 누가 불러주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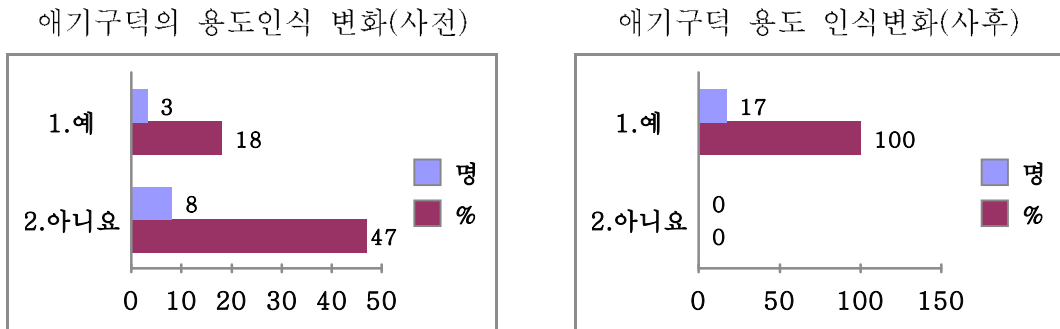
<그림 5 > 자장가 가창자 빈도



자장가를 누가 불러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의 육아문화는 어머니 뿐 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공동 육아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한 유아 당 중복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이 불러주는 대상은 어머니가 71%, 할머니가 41%, 아빠 29%, 기타가 35%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아버지의 다른 형제나 할아버지의 경우가 있었다.

라. 제주도 애기구덕의 쓰임새를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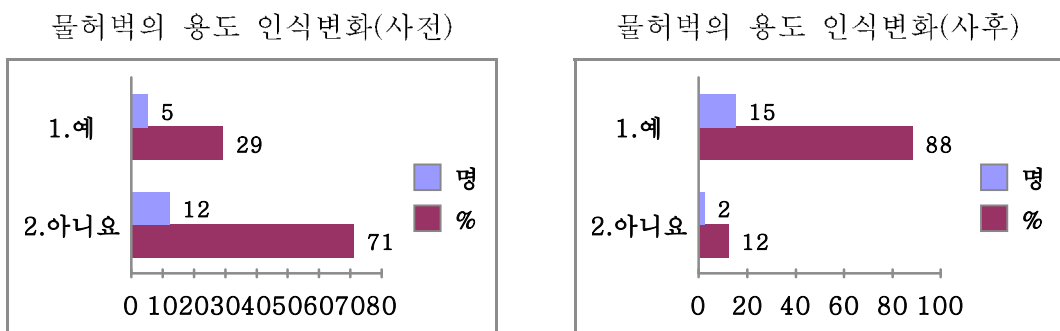
<그림 6 >



제주도 육아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애기구덕이다. 유아들은 애기구덕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았다. 애기구덕 속에 인형을 진짜 아기 인양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이었다. 교사가 애기구덕을 가지고 풀매는 모습, 팻돌 돌리면서 애기구덕 흔드는 모습, 바느질하며 발로 애기구덕 흔드는 모습 등을 보여 주어 제주도 육아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운 결과 아이들의 애기구덕의 쓰임새의 대한 결과가 12%에서 100%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제주도 물허벅의 쓰임새를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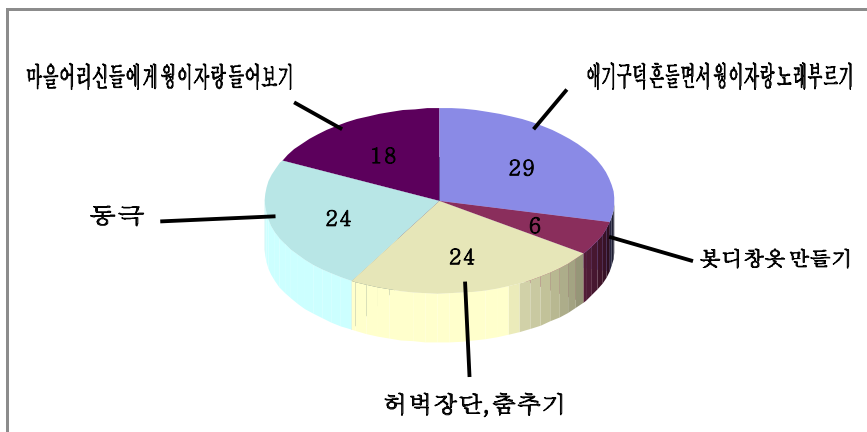
<그림7 >



물허벅을 통한 수업에는 물허벅 장단, 팔죽 담아나르기 놀이, 물허벅 춤을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유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허벅이 파손되어 다시 유아들과 함께 제작하여서 유아들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튼튼한 허벅이 완성되어 자유선택활동시 많은 호응이 있다는 말을 담임교사를 통해 들었다. 물허벅 · 오줌허벅 · 씨허벅등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되어 물허벅의 쓰임새에 대하여 유아들의 인식의 변화가 29%에서 88%로 59%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어떤 것이 재미있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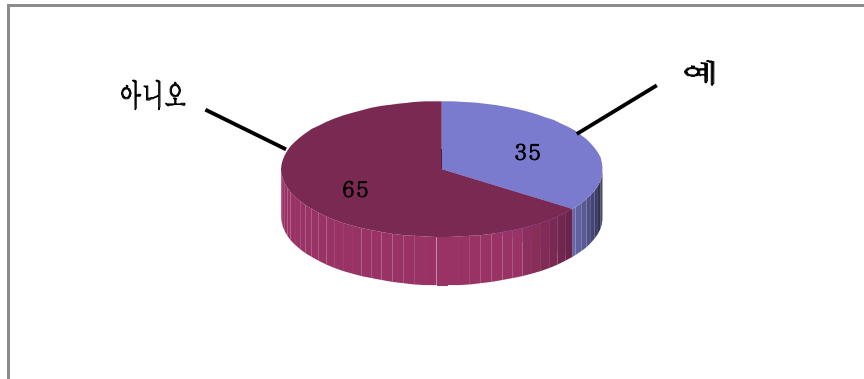
<그림 8 > 유아들의 활동 선호도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유아들의 흥미도를 측정하였다. 어떤 것이 제일 재미있었냐는 질문에는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가 29% 이어서 허벅과 동극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오감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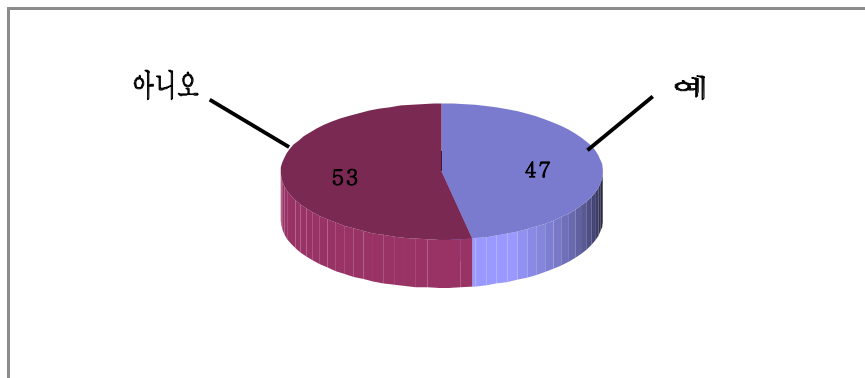
사. 「왕이자랑」을 집에서 불러달라고 한 적 있니?

<그림 9> 「왕이자랑」 요청 빈도



아. 집에 가서 배운 것을 해 본적이 있니?

<그림 10> 「왕이자랑」 가정에서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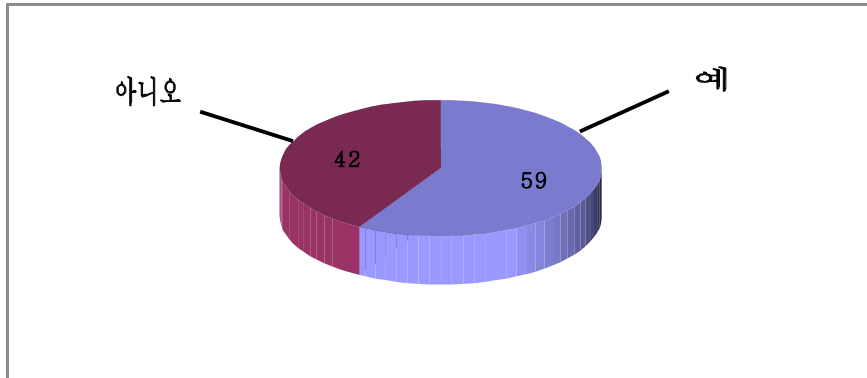


7,8번의 문항에 대한 질문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 가서 얼마나 재현을 한다거나 요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배운 것을

해본 아이들은 47%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53%로 나타났다. 논문을 위한 특별 수업 인 관계로 가정과의 공유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가정과 교사 어린이가 공유해야 가정과 연계되어 교육효과가 더 상승한다. 또한 생활환경이 바뀐 오늘날의 향토문화는 유아교육현장에 담당해야할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잠들 때 「왕이자랑」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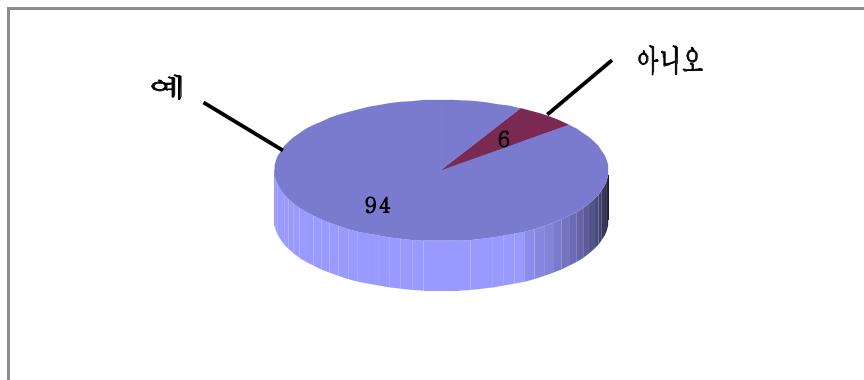
<그림 11 > 「왕이자랑」 생활의 적용도



유아들은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자장가보다는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 유아들의 반응이 59%로 나타났다.

차.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왕이자랑」을 들려줄 거니?

<그림 12> 「왕이자랑」 전승 기대도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려줄 거냐는 질문에는 94%의 유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였다. 아끼지 말고 많이 불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일러주었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전통문화는 가정에서 만이 아닌 유아교육현장에서 체계적 교수학습지도안을 마련하여 유아들에게 노출 되고 경험되어야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세계화를 화두로 우리 것에 대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서가 담긴 우리 음악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음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장가를 듣고 부르게 해야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느낀 진동을 태어나서는 애기구덕에서 느끼고 성인이 되어서는 ‘태우’라는 물고기 잡이 배로 느끼며 죽어서는 이어도 섬으로 이어간다. 세상의 태어나 처음 듣는 노래인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은 애기구덕의 반복된 흔들림으로 장단을 만들어내었다. 유아기에는 제주도 전래동요와 놀이로 성인이 되어서는 ‘멜 후리는소리’, ‘서우젓 소리’로 짜임새를 갖추어 가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다. 여기에 자장가가 음악의 시작이며 민요의 근간이라는 비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표현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과 예술적 경험의 과정, 개별적 느낌을 토대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선정하였다. 교육적 가치가 높고 사라져가는 지역의 고유한 육아문화와 노래를 전승하기 위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앞서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린이 보육시설 8군데 교사 49명과 학부모 2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교사는 26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학부모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자녀에게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들려주었느냐는 질문에는 53.52%, 자주 들려주었느냐는 질문에는 11.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유아들의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79.6%인데도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는 0%이고, 잘 모르겠다가 22.5%, 그렇다가 77.5%나 되었다. 오늘날의 양육문화가 변화되고 유아들의 활동시간의 많은 부분이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체계적인 전통예술교육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제주시 D 어린이집 만5-6세 어린이 17명을 대상

으로 「왕이자랑」 감상하기 -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 - 애기구덕 옮기기 놀이와 애기구덕 흔들어보기 - ‘뿔디창옷’ 만들기 조형활동 - 허벅 장단 익히기 - 허벅 춤 동작 익히기 - ‘왕이자랑 자랑자랑’ 극 놀이 - 발표와 구전(마을어르신 11명 참여)의 통합적 교수학습지도안을 10차시로 적용하였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지도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장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41%에서 사후71%로 증가하였고, 「왕이자랑」의 인식도에는 사전 12%에서 94%로 상승하였다. 제주도 생활도구인 애기구덕의 쓰임새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8%에서 100%, 허벅의 쓰임새는 12%에서 100%로 생활도구의 이름과 용도를 알게 되었다. 유아들이 선호도는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왕이자랑」 노래 부르기과 허벅으로 했던 장단, 춤, 놀이가 각각 24%씩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유아들이 자유 선택 활동시간에 애기구덕과 물허벅을 많이 가지고 놀고 다른 방법으로도 창의적 활동을 한다고 전해주었다. 이로 보건대 유아들은 노래 부르거나 그림그리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보다 도구를 이해·수용·활용 할 때 더 큰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교육은 지역문화의 습득과 음악의 근간이 되므로 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둘째,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속 제주의 고유어를 살리고 또한 친숙해지며, 지역 자긍심과 지역 문화에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다.

셋째,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통합적 표현활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다.

제주에는 어린이를 위한 많은 전래노래와 놀이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향토 박물관에 보관만 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보물이다. 보편적 내용만을 담은 지침서에 의존하지 말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지역문화를 되살려 연령에 맞는 교수학습지도안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들의 음악적 모국어 회복시키고 지역문화와 친근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언을 덧붙이자면, 본 연구는 제주도라는 한정

된 지역의 자장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다른 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지도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유아수준에 맞는 교재와 교구를 선택하고 적용한다.

유아들로 하여금 먼저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친밀해 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서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의 양육문화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문화로 건너갈 때 제주도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무한한 축복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다양성에 관심을 주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연수, 『창 본 준향전』, 서울: 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76.
-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서울: 민속원, 1999.
- 김정숙, 『자청비·가쁜장아기·백주또 :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 각, 2002.
- 노동은, 『한국영아음악연구』, 서울: 세광 출판사, 1992.
- _____, 『한국음악교육론』, 한국음악연구소, 2010.
- 노동은 · 전송배 · 민행난 · 박형신, 『전국 유아국악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 아동 국악교육협회, 2005.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서울: 대한정판사, 1992.
- 박찬식 ·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 제주도, 제주민예총, 2001.
- 성백인 역주, 『만주 샤만 신가=Nisan saman I bithe』,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1974.
-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서울: 민속원, 1999.
- 이소은 · 이순영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임동권, 『한국의 민요』, 서울: 일지사, 1986.
- 전인옥 · 이숙희, 『유아음악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전송배 · 모형오, 『유아국악교육-이론과실제』, 서울: 양서원, 2006.
- 조영배, 『향토 민요와 문화』, 서울: 예술, 1998.
- _____, 『북제주군 민요 채보연구』, 서울: 예술, 2002.
- _____,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제주 본도 창민요, 의식요, 자장가 편-.』, 서울: 민속원, 2009.
- 좌혜경, 『한국 구연 민요(연구편)』, 서울: 집문당, 1997.
- 제주도, 『제주의 민속4, 의 · 식 · 주』, 제주: 제주도, 1996.
-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제주민속연구소, 2003).
- _____, 『남국의 민요』, 서울: 정음사, 1979.

- _____, 『제주민속의 멋1』, 서울: 열화당, 1986.
 현승환, 『제주의 민속 문화, 제주인의 일생』, 서울: 국립 민속 박물관, 2007.
 홍양자, 『전래동요를 찾아서』, 서울: 우리교육, 2001.

2. 일반논문

- 김현선, 「제주도 당분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 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명 현, 「자장가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음악적 특징연구」, 『한국 민요학』 제16집, 부산: 한국 민요학회, 2005, 77-116쪽.
 윤치부, 「한국자장가 연구·제주 자장가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주도 연구회, 1985, 163-214쪽.
 이창재, 「한중일 영웅 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한국 학술 진흥재단, 2003.

3. 학위논문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여성 노동요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2.
 양조훈,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1996.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
 오만택, 「제주민요 교육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10.
 윤치부, 「한국자장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좌혜경, 「제주 전승동요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1986.

부 록

<부록 1> 교수학습 지도안

1) 「왕이자랑」 조형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미술영역 조형 활동에서는 제주도 아이들의 출생의례를 알아본다. 제주도에 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3일이 지나면 ‘뽕디창옷’을 입히게 되는데 이는 아이가 출생하여서 처음으로 입게 되는 옷으로 그 의미가 크다. 유아들에게 ‘뽕디창 옷’의 유래를 일러주고 첫 옷을 입히면서 부모와 조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느껴보는 시간이다.

처음 교수학습지도안 계획시에는 애기구덕을 유아들과 만들어 볼 생각이었으나 우선 미리 교사가 만들어 보니 유아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종이 애기구덕은 교사가 만들어서 준비해주고 유아들은 아기 그림 그리고 뽕디창옷 입히기로 수정하였다.

<표 6 >조형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단계	「왕이자랑」 조형 활동		대상	만5세	차시	4차시	시간	30-40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진이 얼굴 그리고 색칠해보기. - ‘뽕디 창옷’ 만들어서 어진에게 입혀보기.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유아		2-3	.장구, 장구채, 애기구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이자랑」 노래를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이자랑」 부르며 바르게 앉기. 				

미 적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p>-바르게 앉아 있는 유아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 준다.</p> <p>-가운아 자랑아 자랑자랑 자랑 자랑 물외 크듯 키와 줍서.</p> <p>-모두 착한 아이처럼 앉아 있구나. 안녕 친구들</p> <p>-지난 시간에 보았던 애기구덕을 선생님이 만들어왔어요</p> <p>친구들은 ‘어진이’를 그리고 오려서 ‘벗디창옷’을 입히고 이 애기구덕 속에 넣어 보기로 해요.</p>		2-3	<p>.자유 활동 시간에 유아들의 활동을</p> <p>.장구, 장구채, 애기구덕</p> <p>.자유 활동 시간에 유아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이야기 나눌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조형 활동을 위한 실제 애기구덕을 놀이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자유 선택 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익숙해지도록 한다.</p> <p>•‘어진이’의 유래를 이야기해준다.</p> <p>•‘벗디창옷’에 관한 육아 의례를 이야기해준다.</p>	<p>• .애기구덕의 구조 관찰하기</p> <p>•‘벗디창옷’ 관찰하기.</p> <p>• 관찰한 ‘벗디창옷’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다.</p>	3-4	<p>.애기구덕</p> <p>. 유아들이 한꺼번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두 명이나 세 명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p>
미 적	감 지	탐 구 활 동	<p>• 제주도 아기 만들기</p> <p>• 활동지에 ‘어진이’색칠로 완성하기</p> <p>• 한지로 ‘벗디창옷’ 접기</p> <p>①양팔 밑그림을 오린다.</p>	<p>-아기 그림 그리기</p> <p>-아이 몸에 ‘벗디창옷’입히기</p> <p>-가위로 아기그림 오리기</p>		<p>.활동지, 가위, 한지, 풀색연필.</p>
			<p>• 제주도 아기 만들기</p> <p>• 활동지에 ‘어진이’색칠로 완성하기</p> <p>• 한지로 ‘벗디창옷’ 접기</p> <p>①양팔 밑그림을 오린다.</p>	<p>-아기 그림 그리기</p> <p>-아이 몸에 ‘벗디창옷’입히기</p> <p>-가위로 아기그림 오리기</p>		<p>.활동지, 가위, 한지, 풀색연필.</p>

음 악 미 적 표 현 행 위	창 의 적 표 현 화	활 동	②가슴 옆 밑그림을 오린다. ③양팔 끝자리를 접는다. ④①,②를 풀로 붙인다. • 어진이에게 ‘붓치창옷’을 입히고 오려보기	-유아 스스로가 그린 아기를 애기구덕에 놓는다.	15-20	.가위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한다.
		개 념 화	• 유아가 만든 아이를 종이 애기구덕에 놓히고 관찰한다. • 다른 친구들의 아기도 관찰한다. • 직접 유아가 만든 아기를 애기구덕에 누이고 흔들면서 「윙이자랑」 불러본다. • 우리 조상들이 애기구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본다. -직접 아기를 그려 보니 어땠어요? -아기의 이름을 무어라고 지었나요?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왜 바구니에 아기를 담았을까? -바구니 밑에는 왜 지푸라기를 깔아 줬을까? -애기구덕에 누운 아기는 어떤 기분일까?	• 자신이 만든 어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윙이자랑」 불러주기. • 생각 주머니를 열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5-6	.타인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아가 직접 아기를 그리고 옷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간접으로 느껴보는 기회를 삼는다.
가 치 화	가 치 판 단	평 가	•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아기 만들기를 보며 평가한다.		2-3	.유아들의 활동 시 바람직한 태도를 중시한다.

기저귀만 차고 있는 아기그림이 그려진 활동지를 유아들에게 나누어준 후 얼굴모양과 색칠을 하도록 한다. 그림을 완성한 후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도

록 하였더니 ‘얌얌이’ ‘개똥이’ ‘숫돌이’ 다양한 이름이 나왔다. 아직 글을 모르는 유아들은 친구의 글씨를 보고 쓰기도하고 교사가 다른 종이에 유아가 원하는 이름을 써주면 유아는 교사가 써준 글씨를 보고 베껴서 쓰기도 하였다.

‘뱃디창옷’은 한지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밑그림을 오린 후 두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고 유아들이 생각보다는 잘 따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려두었던 아기그림에 ‘뱃디창옷’을 붙인 후 가위를 이용하여 오려보았다. 교사가 준비한 종이 애기구덕에 자신이 만든 아기를 놓고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왕이자랑」을 불러준다.

마무리 단계에서 “환석이는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나요?” 라고 물어보자 “개똥이요” “그렇구나. 개똥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예쁜 사람이요”라고 대답했다. 유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나마 부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유아국악수업시 장단을 위한 악기로 장구가 기본으로 쓰인다. 그러나 서민의 악기로 허벅이나 생활도구 등이 쓰였던 것으로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에 허벅장단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왕이자랑」 장단 2-1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물허벅은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로 물구덕에 집어넣고 등에 지고 음료수를 담아 나르는 도구이다. 물허벅은 그냥 허벅이라고도 하며, 모양은 지름이 1자 정도의 둥그런 항아리이다. 부리가 좁아 물을 넣어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손잡이로도 사용하게 되어있다. 즉 부리는 어른의 주먹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배는 불룩하여 거의 구 물허벅을 지고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은 여인의 모습은 제주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물허벅은 제주도 고유의 타악기이기도 하다. 많은 남녀가 한데 모여 노래를 부르며 댄스 때 반드시 ‘허벅 장단’을 치게 된다. 허벅의 부리를 손바닥으로 치면 은은한 울림의 깊이 있는 장단소리가 울리고, 한쪽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두들기면 다시 다른 빛깔의 소리가 울려나온다. 이 두 가지소리를 낼 수 있는 허벅장단은 제주도 고유의 민속악기의 구실을 담당해 왔다.⁶⁴⁾ 허벅을 두드리는 것으로는 표주박이나 숟가락 등을 사용하였다.

64) 진성기, 앞의 책, 128쪽.

유아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물허벅의 쓰임새를 알도록 한다. 유아들에게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만져보고 흔들어보더니 허벅 주둥이에 대고 “아” 소리를 내보는 아이도 있었다. 유아들은 허벅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과 오줌을 담았다는 것을 마냥 재미있어하였다. 물허벅이 우리 고장의 중요한 악기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물허벅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평평 내리치고 허벅 상단을 표주박으로 두드려 보았다. 허벅을 작은 것으로 준비하였으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멍을 막으면서 소리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자꾸만 손가락을 넓혀서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나가 버리고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손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흥미 있어 하였다.

<표 7 >허벅 장단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1

학습 단계	물 허벅 장단		대상	만5세	차시	5차시	시 간	30 분
활동목표	- 물 허벅의 쓰임새 알아보기. - 물 허벅 장단을 배워본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 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4-5	.장구, 장구채, 애기구덕 .자유 활동시 간에 유아들 의 활동을 관찰하여 이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 손유희 장구 소리 우리 소리 덩 덩 덩 따쿵따 북 소리 우리소리 두둥 두둥 둥 둥 팽과리 소리 우리소리 갠지 갠지 깨르르르 징 소리 우리 소리 징 얼쑤! • 악기 마다 소리가 다 른 것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 손유희 얹! • 주고받으며 악 기 구음으로 대답 한다. -덩 덩 덩 따쿵따 -두둥 두둥 둥 둥 -갠지 갠지 깨르 르 -징 얼 쑤! • 악기 소리를 흉내내어 본다. 				

감 지	자 극	탐 구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허벅의 쓰임새를 알아본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 사용하는 도구임을 알도록 한다. 물 허벅의 입구가 좁은 것은 물을 옮길 때 물이 흘러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도록 한다. 사돈집에 제사가 있을 때 팔죽으로 부주를 했던 전통을 말해준다. 물 허벅이 물을 옮기는 것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약기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허벅을 탐색한다. 물 허벅을 두드려본다. 물 허벅의 입구를 손바닥으로 두드려본다. 물 허벅을 짚어진다. 	5-6	<p>물 허벅은 깨질 수 있는 항아리 이면서 무게가 있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에 유의한다. 모든 유아들의 탐색이 가능하도록 그룹으로 나와 탐색 하도록 한다.</p>								
미 적 행 위	지 각 반 응	타 법 익 히 기 개 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벅 연주기법 <table border="1" data-bbox="523 1037 1050 1429"> <thead> <tr> <th>부호</th> <th>연주기법</th> </tr> </thead> <tbody> <tr> <td>○</td> <td>.물 허벅의 입구를 왼손으로 튕기듯이 친다.(왼손잡이는 반대로 한다.)</td> </tr> <tr> <td>/</td> <td>.표주박이나 손가락으로 물 허벅의 상단을 누르듯이 친다.</td> </tr> <tr> <td>∅</td> <td>.물 허벅의 입구와 상단을 동시에 친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날 제주도는 지금 처럼 물이 나지 않아서 물을 길러 와서 저장해 두고 먹어야 했으며 물을 길어 올 때 사용한 도구가 물 허벅이었음을 알도록 한다. 물 허벅의 쓰임새에 대하여 얘기 해보도록 한다. 물을 길러 와서 어디에 사용했을 것인지 말해본다. 물 허벅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본다. 	부호	연주기법	○	.물 허벅의 입구를 왼손으로 튕기듯이 친다.(왼손잡이는 반대로 한다.)	/	.표주박이나 손가락으로 물 허벅의 상단을 누르듯이 친다.	∅	.물 허벅의 입구와 상단을 동시에 친다.			<p>물 허벅의 입구가 유아의 손에 맞을 수 있도록 작은 것으로 준비한다.</p> <p>개인적으로 지도 하도록 한다.</p> <p>유아들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한다.</p>
부호	연주기법													
○	.물 허벅의 입구를 왼손으로 튕기듯이 친다.(왼손잡이는 반대로 한다.)													
/	.표주박이나 손가락으로 물 허벅의 상단을 누르듯이 친다.													
∅	.물 허벅의 입구와 상단을 동시에 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들이 어떻게 연주하며 놀았을 것 같은지 얘기해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2-3	
가치화	가치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할 때 악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를 평가한다. • 연주기법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기법에 맞춰 연주한다. 	2-3	.유아들의 활동 시 바람직한 태도를 중시한다.

3) 「왕이자랑」 허벅장단 2-2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물허벅을 이용한 악기 놀이는 기존에 장구를 활용한 국악수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허벅장단은 타범이 가장 중요하다. 허벅 주둥이에 손바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다. 손의 힘을 빼고 손목의 탄력을 이용하여 위에서 내리치는데 교사가 먼저 소리를 들려주고 유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퐁’ 소리를 찾아가야 한다.

유아들에게 맞는 허벅을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어지는 차시에서 다룰 물허벅 춤과 관련하여 기존의 허벅은 무게와 자칫 깨질 우려도 있어서 플라스틱 깔대기와 풍선, 한지를 활용하여 종이 허벅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유아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허벅장단 부호는 장구장단부호와 유사하게 표시 하였다. 유아들은 허벅연주가 기존의 장구연주보다 재미있다고 하였다. 물론 생소한 악기여서 유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도 있지만 장구는 궁채를 잡을 때 손가락이 아프다는 유아들의 건의가 종종 있어왔으나 허벅은 한 손은 맨손으로 또 한 손은 표주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구를 고정하기 위해 발을 이용하여 장구의 줄을 누르면서 연주해야 하는데 반해 허벅은 그저 양반다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허벅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연주할 수 있어 훨씬 안정감이 있다. 소리 면에서도 울림이 깊고 은은하여 유아들의 정서에 유익하다

먼저는 ‘핑’소리에 중점을 두고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기를 달리하여 연주해 보았다. 허벅장단의 기본 타범 만 익히면 장단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유아들이 알고 있는 동요나 제주도전래노래를 허벅장단에 맞춰 불러보았다. 교사는 유아들이 허벅을 연주할 때 다른 악기를 삽입하여 볼 수 있다. 휘모리장단을 유아들에게 치도록 하고 교사는 「왕이자랑」 노래를 불러준다. 기동장단 만 치다가 ‘왕이자랑’ 부분에 만 휘모리장단을 넣어본다.

유아들이 작년에 이어 사물놀이를 해왔던 터라 허벅장단을 짧은 시수에 마무리 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장단을 익힌다거나 장단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더 많은 시수와 단계를 거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 8 > 허벅 장단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2

학습 단계	물 허벅 장단2-2		대상	만5세	차시	6차시	30분
활동목표	- 휘모리장단 연주를 해본다. - 「왕-이자랑」에 맞춰 허벅장단 연주를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2-3	.장구, 장구채, 물 허벅. .장구와 물 허벅의 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쁘다 노래 허벅장단으로 반주한다.(긱거리) -합 따따 궁 따 궁 • 지난 시간에 배운 연주기법을 상기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쁘다 노래 허벅장단으로 반주한다.(긱거리) -합 따따 궁 따 궁 • 지난 시간에 배운 연주기법을 상기시킨다. 			
	지 각		-표주박 무슨 소리일까요? -왼손 오므렸다 펴면서 무슨 소리일까요?	-따따 따따따 -퐁퐁 퐁퐁퐁		장단과 타범을 연결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음 악 미 적 행 위	반 응	원손 오른손 무슨 소 리일까요?	-핑핑 핑핑핑																													
	탐 구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모리장단 익히기(장구) <table border="1"> <tr> <td>분 류 / 박</td> <td>1</td> <td>2</td> <td>3</td> <td>4</td> <td>1</td> <td>2</td> <td>3</td> <td>4</td> </tr> <tr> <td>기 호</td> <td>⊙</td> <td>⊙</td> <td>○ </td> <td>○</td> <td>⊙</td> <td>⊙</td> <td>○ </td> <td>○</td> </tr> <tr> <td>입 장 단</td> <td>덩</td> <td>덩</td> <td>쿵 덕</td> <td>쿵</td> <td>덩</td> <td>덩</td> <td>쿵 덕</td> <td>쿵</td> </tr> </table>		분 류 / 박	1	2	3	4	1	2	3	4	기 호	⊙	⊙	○ 	○	⊙	⊙	○ 	○	입 장 단	덩	덩	쿵 덕	쿵	덩	덩	쿵 덕	쿵	5-6	.“퐁”소리는 유아가 쉽게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 므로 개별적 으로 교사의 지도가 요구 된다.
		분 류 / 박	1	2	3	4	1	2	3	4																						
기 호	⊙	⊙	○ 	○	⊙	⊙	○ 	○																								
입 장 단	덩	덩	쿵 덕	쿵	덩	덩	쿵 덕	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모리장단 익히기(물 허벅) <table border="1"> <tr> <td>분 류 / 박</td> <td>1</td> <td>2</td> <td>3</td> <td>4</td> <td>1</td> <td>2</td> <td>3</td> <td>4</td> </tr> <tr> <td>기 호</td> <td>∅</td> <td>∅</td> <td>○ /</td> <td>○</td> <td>∅</td> <td>∅</td> <td>○ /</td> <td>○</td> </tr> <tr> <td>입 장 단</td> <td>핑</td> <td>핑</td> <td>퐁 따</td> <td>퐁</td> <td>핑</td> <td>핑</td> <td>퐁 따</td> <td>퐁</td> </tr> </table>		분 류 / 박	1	2	3	4	1	2	3	4	기 호	∅	∅	○ /	○	∅	∅	○ /	○	입 장 단	핑	핑	퐁 따	퐁	핑	핑	퐁 따	퐁				
분 류 / 박	1	2	3	4	1	2	3	4																								
기 호	∅	∅	○ /	○	∅	∅	○ /	○																								
입 장 단	핑	핑	퐁 따	퐁	핑	핑	퐁 따	퐁																								
개 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허벅 소리의 느낌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휘모리장단의 부호를 보고 구음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허벅 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 한다. • 부호 보고 구음 답해본다. • 물 허벅은 제주도 서민 악기임을 안다. 	2-3	.조상들의 삶의 풍경들을 짧게나마 재 현해 봄으로 써 유아들의 이해를 돕는 다.																												

가치 화	가치 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제주도 물 허벅장단을 새롭게 연주하면서 느꼈던 지역문화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유도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물 허벅이라는 특별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2-3	.유아 개개인의 의견을 중시한다.
---------	----------	----	--	--	-----	--------------------

허벅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씨앗을 담으면 씨 허벅, 오줌을 담으면 오줌 허벅이 되는 다용도 생활도구이자 악기이다. 또한 멀리 이동 할 때 유용하여 팔죽을 담아 나르기도 하였다. 제주인의 생활용기인 허벅의 다양한 용도와 아름다운 풍습을 다음단계에서 다루어 보았다.

4) 놀이와 표현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허벅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사둔 집에 초상이 나면 망극한 일을 당하여 분주할 것을 염려하여 사둔 집에서 팔죽을 끓여서 상가 집에 부주를 하였다. 초상집에서는 이 팔죽으로 문상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습을 유아들에게 전하고 놀이로 표현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미덕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차시의 목표이다.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어깨동무 내 동무’ 노래와 놀이로 협동심을 연습한 후 두 모둠을 나누기 위한 놀이를 진행하였다. 실제 팔죽이나 물 같은 액체로는 실내 놀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팔알을 연상케 하는 구슬을 사용하였다. 유아들이 허벅 속에 일정양의 구슬을 담고 허벅을 맨 후 “어머니 다녀 오쿠다”하고 출발하여 반환점을 돌아와서 “사둔 팔죽 오랏수다” 하고 외치면서 허벅에서 구슬을 붓고 다음 친구에게 순서를 넘기는 놀이이다.

놀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허벅을 등에 매 본적이 없었던 유아가 매우 능숙한 몸짓으로 허벅을 매고 벗는 것을 보니 가르치는 교사지만 신기하게 보였다. 아마 제주인의 유고한 열이 유전 되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앞서 애기구덕을 이용한 ‘애기구덕 옮기기’ 놀이가 정적인 놀이었다면 이번 차시의 ‘팔죽 담아 나르기’놀이는 보다 동적인 놀이로 구성하여보았다.

<표 9 >놀이와 표현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단계	팔죽 담아 나르기 놀이		대상	만5세	차시	7차시	시간	30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허벅에 팔죽 담아 나르기 놀이를 하면서 조상들의 생활을 알아본다. -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반 응	동 기 유 발	교사		4-5	.장구, 장구채, 물허벅.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동무 내 동무」 노래부르기 -손잡고 부르기 -어깨 걸고 좌우로 움직이기 -어깨 걸고 앞뒤로 움직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른다. 		
미 적 행 위	미 적 지 각	놀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풍속에 대하여 이야기 해준다. -팔죽 나르기 풍속 알려준다. • 놀이의 규칙 알려주기 -놀이를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 방법 1.팀 정하기 - 두 사람이 대문을 만들고 유아들은 한 줄로 「뽀짝 뽀짝 고사리 뽀짝」 (굿거리) 노래를 부르며 통과하다가 노래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사돈 관계에 대하여 유아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면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접근 한다.

미 적 행 위	미 적 지 각	놀 이 하 기	<p>말미에 잡힌 친구를(자진모리)로 좌우로 흔든 다음 콩인지 팥인지 묻는다 -대문을 만든 친구의 뒤에 콩 팀과 팥 팀이 줄을 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잡힌 친구는 자신이 콩인지 팥인지 결정한다. 	7-8	
			<p>2.물 허벅 매고 반환점 돌아오기 -“어머니 다녀오쿠다~”외치고 출발하기 -반환점에서 내용물 담아 돌아오기 -다음 대기자는 담겨진 내용물을 반환점 그릇에 쏟아 붓고 돌아오기 -마지막 유아는 “사둔 팔죽 오랏수다” 하고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놀이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서 지키기 •앞의 친구 등에 허벅매주기. •팔죽 대신 구슬 담아야 오기. •들어올 때 큰소리로 “팔 죽 오랏수다.” 외치기. 	10-15	<p>.직접 팔죽을 나르는 놀이를 할 수 없으므로 팔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기는 것보다는 내용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p>
		개 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와 함께 유아들이 제주도 물 허벅문화에 대해 정리한다. •물 허벅에 또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중에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 	2-3	

가치화	가치 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놀이를 통한 즐거움과 만족감 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놀이 하면서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2-3	.놀이 중에 친구에 대한 배려심등 태도에 대하여 평가 한다.
-----	-------	----	--	--	-----	-----------------------------------

물허벅은 물의 양에 따라 소리가 달리 난다. 제주도 여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동무를 지어 물을 길러 다녔는데 우물가에 여럿이 모여지면서 나름의 문화가 생성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벅춤이다. 물을 허벅에 담기 전에 허벅을 맨 채로 노래도하고 간단한 동작 등이 어우러지는 판이 벌어진다.

허벅을 활용하여 장단과 놀이, 동작으로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 하였다.


5) 물허벅 동작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동기유발로 ‘구 아리랑 신 아리랑’ 음악에 맞춰 몸 풀기를 먼저 한 후 제주도 물허벅 춤을 비디오로 감상한다. 유아들에게 열채를 이용하여 등 뒤에 있는 물허벅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 반 친구를 비유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교사가 먼저 물허벅 춤을 선보인다.⁶⁵⁾ 유아들에게 열채를 나누어주고 굿거리를 장단을 익힌 후 한 동작 한 동작씩 따라 하도록 한다. 자유선택 활동 시에 허벅을 떼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 동작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65) 양성옥, 「해녀춤·물허벅춤」(제주: 제주도 문화진흥원, 2005) 35-494를 참고하여 유아수준에 맞게 구성하였다.

학습 단계	물 허벅 춤		대상	만5세	차시	8차시	시간	30분
활동목표	-물 허벅을 이용한 춤을 출 수 있다. -물허벅을 이용한 동작을 창의적으로 표현 해본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4-5	.물 허벅. 장구채. .음악에 맞춰 몸을 풀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아리랑 신 아리랑 노래에 맞춰 몸 풀기. 이야기 나누기 - 물 길러간 제주여인들이 모여 앉아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놀았던 이야기를 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쁘다 노래 부르며 자리에 앉는다. 장단 카드보고 구름 말하기 				
	표 현	동 작	1.기본자세 			'오돌또기' 음원. .실제 허벅은 유아에게 버거울 수 있다.		
			-몸 방향: 아랫배에 호흡을 하고 오른손은 2개의 허벅 채를 들고 왼쪽의 허벅 면에 '치는 형태'로 댄다. 왼손은 가슴 높이에서 허벅구덕 줄을 잡는다. -발 방향: 왼발 중심으로 왼발 앞에 오른발 뒤꿈치를 대고 세운다. -시선방향: 측면으로 정면을 평면 높이로 본다.					

<p>미 적 행 위</p>	<p>하 기</p>	<p>익 히 기</p>	<p>15-1 7</p>	<p>플라스틱 나 종이를 이용해 만든 허벅을 사용 하도록 한다.</p> <p>.굴신 자세를 기본으로 지 도한다.</p> <p>.손바닥 뒤집 는 동작은 하늘, 땅 으 로 설명하여 유아들의 이 해를 돕도록 한다.</p>
<p>2. 걷기</p>				
<p>-왼쪽으로 30 뽀을 틀고 하수 앞 위로 옮겨 본다. -오른발에 왼발을 붙인다. -왼발 중심으로 무릎을 굽히고 오른발을 든다.</p>			<p>3. 윗 사위 익히기</p>	
			<p>-오른발을 딛으며 동시에 머리 위에 맨 오른손 은 위로 펴고 허리 뒤로 감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뒤집어 위로 올린다. 양손은 머리 위에서 나란히 오른쪽 ,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지준다.</p>	
<p>4. 앉기</p>				







<p>행 위</p>	<p>표 현 하 기</p>	<p>-오른손은 허벅 구덕 줄을 잡는다. 동시에 오른발을 몸 방향 앞을 딛고 오른발 중심으로 왼쪽 무릎을 지면에 대면서 앉는다. -호흡을 오리며 반 무릎 앉은 도듬세 까지 일어나서 원을 형성한다. -허벅 채를 땅에 내리고 양손으로 허벅 위에서 엇가리면서 호흡한다.</p> <p>5. 돌기</p>  <p>-양팔을 왼쪽 어깨위로 나란히 올려 오른발을 딛으며 양손의 허벅 채를 엇걸고 서로 교차하여 '딱'을 친다. -교차된 채를 들고 허벅 왼쪽으로 돈다.</p> <p>6. 마무리 자세</p>  <p>-두 손을 허벅위에 가볍고 올려놓고 인사장단으로 마무리 한다.</p> <p>7. 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벅춤 동작보고 따라 해본다. • 제주도 물허벅 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p>.유아의 신체적 반응을 격려해 주고 유아들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히 하도록 한다.</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물허벅 춤을 따라해 본 소감이 어떤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물허벅 춤은 누가 찢던 춤일까?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과 함께 물허벅 춤을 추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동작이 재미있었나요? -또 다른 재미난 동작은 뭐가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동작을 생각해보고 발표해본다. 	2-3		
가치화	가치판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물허벅 춤은 독무가 아닌 것과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자신만의 동작을 표현한 것을 격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하는 동작 활동은 서로 어울려서 맞춰가며 하는 것을 알게 된다. 	2-3	.유아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되 질서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한다.



<표 11> 물 허벅 장단 (긱거리)

부호	∅		//	○	/	○		∅	//	○	/	○
구음	평		따따	퐁	따	퐁		평	따따	퐁	따	퐁

<표 12>오돌또기 허벅 춤

순서	노랫말	동작	동작그림
1	전주	채자리에 서서 오른손에 채를 들어 왼쪽 어깨에 걸친다. -굴신 4번	
2	오돌 또기	오른쪽으로 크게 한걸음 옮긴 후 굴 신 왼쪽으로 크게 한 걸음 옮긴 후 굴신	
3	저기 춘향이 나온다	오른 발부터 앞으로 내딛으며 4보 전진	
4	달도 밝고	양손을 위로 올리고 좌우새	
5	넷가 머리로 갈까나	채손을 앞을 향해 큰 원을 그리고 왼쪽어깨로 다시 걸친다.	
6	등그데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당실 연 자 버리고	채를 이용하여 등 뒤의 허벅에 갖거 리장단을 치면서 한 바퀴 돌아온다.	

7	달도 밝고	4번 반복	
8	넷가 머리로 갈까나	어깨에서 허벅을 내려서 무릎 에 놓는다.	
9	한라산 중허 리에	채를 내려놓고 표주박을 들어 허벅 위에서 돌음새를 한다.	
10	시로미 익은 송 만송	표주박을 이용하여 엇갈리면서 ‘따’ 를 친다.	
11	서귀포 해녀 가 바당에 든 송 만송	굿거리장단 치기 4번	
12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 여도당실 언 자 버리고	표주박 물구덕에 키우고 일어나서 물허벅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온다.	

13	달도 밝고	4번 반복	
14	넷가 머리로 갈까나	오른 를 올리고 양손으로 큰 원을 그린 후 허벅 위에 양손 모으고 멈 춘다	

6) 통합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왕이자랑」을 활용한 유아수업지도안의 1단계에서부터 8단계에 이르는 수업을 총괄하는 통합 단계이다. 역할극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제주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제주 어와 생활양식, 장단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유아들이 이미 역할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훨씬 수월하게 접근 할 수 있었다. 먼저 교사가 창작한 ‘자랑자랑 왕이자랑’의 대본을 읽어주고 역할을 정하였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제주민요 오돌또기·까마귀 놀래·나무노래·부엌 부엌 전래노래를 삽입하여 노래와 놀이 그리고 연기가 포함된 소리 극 형태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통합 활동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단계	역할극	대상	만5세	차시	9차시	시 간	30 분
활동목표	- 「왕이자랑」의 내용을 토대로 노래와 장단, 춤을 통하여 극 놀이를 해본다. - 역할극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자 극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2-3	.장구, 장구 채, 물 허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영이 손유희 부영 부영 떡 해떡자 부영 보항 보항 양식 없다 보항 부영 부영 걱정 말라 부영 보항 보항 속상하다 부영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캐릭터 별로 흥내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선생님 안녕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 아빠 부영이와 엄마 부영이의 역할을 흥내 내어 본다. -다양한 캐릭터로 흥내 내어 본다. 		
미 적 감 지	지 각 반 응	탐 구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단계에 따른 과정을 살펴본다. -제주도 자장가 「왕이 자랑」 불러보기 -허벅문화 알아보기 -허벅 장단 쳐보기 -허벅 춤 • 대본 들려주기 -등장인물에 대하여 어떤 캐릭터 일지 말해보도록 한다. -누가 나오는지 말해보도록 한다.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극 놀이에 필요한 것을 알아본다. • 소품 준비하기 • 역할 정하기 <p>1.교사의 관찰을 통해 그 역할을 잘 소화 해 낼 수 있는 유아를 선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 해본다. • 대본 속의 인물들을 찾아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 • 8차시 까지 사용했던 도구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한다. 	5-6	.역할극을 통하여 통합적 이해를 위한 접근을 한다.

행 위			2.친구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한다. 3.유아가 원 하는 역할을 배정한다. 4.대사를 시켜보고 선정한다. 5.모둠별로 배역을 나누어 표현 한다.	을 찾아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8차시 까지 사용했던 도구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한다. -대본을 듣고 어떤 것이 필요 할지 말해본다		.역할 정하기는 유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유아의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역 할 극 놀 이		●역할극 하기 <왕이 자랑 왕이 자랑> -교사가 지문을 읽어주면서 극 놀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익숙해지면 유아에게 맡긴다. -파트 별로 연습한다. -하나로 완성한다.	.맡겨진 역할을 잘 표현해 본다. .다른 친구는 내 역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관찰한다.	18-20	.애기구덕, 물허벅, 머리띠 등. .유아들의 개성을 존중한다.
	개 념 화		●역할극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역할극을 해서 좋은 점을 말해준다. ●조상들이 생명존중에 대하여 내면화 하도록 유도한다.	●내가 소중한다고 생각 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말해본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말해본다.	2-3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도록 지도한다.
가 치 화	가 치 판 단	평 가	● 극 놀이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어떤 것이 재미있었는가? -무엇이 힘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 활동 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2-3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유아를 격려한다.

소리 극은 제주도 도평마을에 4.3사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유아 수준에 맞게 구성하였다. 제주도 아이들은 6살이 되면 물을 길러 다닌다. 순이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언니를 따라 밤에 물을 길러 가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성장해 가는 이야기이다. 제주도 풍속을 담아 제주어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 아픈 기억을 가진 제주도를 어머니의 「왕이자랑」 소리로 위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축복을 담아 내고자하였다.

<대본 >

자랑 자랑 왕이자랑

배경

4.3사건이 지난여름.

무대

특별한 무대 장치는 필요하지 않고 삼면무대 마당극 형태 좌우 등퇴장한다. 무대 오른쪽 순덕이네 집 무대 왼쪽 우물가.

등장인물

순덕 : 맏딸로서 순종적이고 철 든 아이.

순이 : 둘째 딸이며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아이

어명 : 4.3 사건 때 남편을 잃고 유복자와 딸 둘을 데리고 억척같이 살아온 전형적인 제주도 어머니

친구1, 2, 3 : 순덕이 동네 친구들.

부영이 4.

까마귀 3.

나무 4.

노루 1.

어명 : (왕이 자랑을 부르며 아이를 재우고 있다.)

순덕아 뭐했시니 저녁 다 먹어시민 순이 도랑 물 지렁 오라!

순덕 : 양. 순이야! 허벅 매영 물 지렁 오게!

순이 : 무사 나껴징?

순덕 : 무시겨! 너 며옴헨?

순이 : 나 겁나단 말이여.

순덕 : 언니랑 ㄱ치 가는데 머가 겁나? 난이, 너 어렸을 땐 컴컴한 밤에도 물 질래 혼자 땡견.

순이 : 게메 오늘도 혼자 갔당오민 되큰게. (투덜대며 언니를 따라 나선다)

순덕 : 확 기냥! 어머니 물 지렁 오쿠다.

어멍 : 기여 혼져 땡겨오라~

순덕. 순이 : 양.

-숲에서 산 짐승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난다.(나무, 부엉이, 노루, 까마귀 등장)-

나무 :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옷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너하고 나 하고 살 구나무 방귀 뽕뽕 뽕 나무(가자가자 부르며 뒤로 물러 나무 모양 하고 선다)

부엉이 : 부엉부엉 떡해떡해 부엉/ 부엉부엉 양식엇찌 부엉/ 부엉부엉 꺾당하게 부엉/ 부엉 부엉 언제 갓젠 부엉/ 부엉부엉 말에 갓젠 부엉/ 부엉 부엉 언제 갓젠 부엉/ 부엉 부엉 애들지마 부엉/ 부엉 부엉 아~라찌 부엉.

까마귀 : 까마귀 까악 생인 쪼쪼/ 강돌와리 침떡 혼빚도라/ 옥초리 밥초리 꼬망 딱새 낚작

노루 : 하이고~ 찌기 사람 왁싱게! 노루도 돌으라 돌으라 (순덕이와 순이 주위를 빙 돌아 간다.)

순이 : 거봐. 겁남찌이.

순덕 : 노루가 우리신디 혼져 읍서예~ 흐·는 거라.(안 무서웠던 것처럼)

순이 : 성~ 겐디 우리 아방은 언제 올꺼라?

순덕 : 거난 아맹 해도 아방은 안 올꺼여.

순이 : 아맹 해도 희한지덴 허난. 우리 할망은 우리 아방 저~ 먼디 배탕 나강 돈 하영 벌영 온덴 해신디! 우리 어멍은 그자 나 크민 알려 준덴만 허곡!

순덕 : 생각나멘? 너 물애기 때 아방이 너신디 웅이자랑 하영 불러 쥬신디.순이 : 진 짜! 아~ 아방 보구정 흐다.

순덕 : 저~기 저 들이 우리 아방 얼굴 담따. 아방! 우리 물 질래 가는 길 잘 지켜줍써 양!

순이 : 이땅 어멍신디 물어봐사켜.

순덕 : 순이야, 재게 걸어! 하간 것덜 몬~딱 기다렘시네.

순이 : 알아서.

-노래 흥얼거리며 우물가로 간다. 다른 배경들도 함께 움직인다.-

순덕 : 다 와싱게.(우물가에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너네는 잘도 재게 와 찌?

친구1 : 무사 영 느전?

순이 : 놀멍 쉬멍 와주게.

친구2 : 우리 물 허벅에 물 그득 담기 전에 허벅 춤이나 한 번 춰보게.

친구1 : 경하게.

- 이야흥 노래 나오면서 허벅 춤을 춘다(뒷배경 친구들도 함께 춤춘다.). 노래가 끝나면 우물에서 허벅에 물을 담고 허벅을 댄다. -

순덕 : 우리 먼저 가멘.

친구들 : 우리도 같거 잘가

- 다시 순덕이네 집. -

어명 : (애기 우는 소리에 애기구덕을 들고 무대로 나오면서)

아이고 울지 말라게. 머 경 울엄시니게.

어명 헐 일도 혼디 울지 말라게. 왕이야 왕이자랑자랑자랑

(발로 아기를 흔들면서 바느질을 한다)

-순이와 순덕이 물 길러 들어와 물 항아리에 물 붓는 모습-

순덕 : 어멍! 물 지렁 와수다!

어명 : 아이고, 잘도 속아찌~ 이제 느네 헐꺼 허라.

순이 : (어명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면서) 어멍! 말해줍서

어명 : 뭘 딸이라

순이 : 우리 아방은 왜 어신거?

어명 : 아방 보구정 허나?

순이 : 양

어명 : 고만 이서보라... 우리 순이 이자 매쌀될 츠래고?

순덕 : 일곱 살 아니짜게.

어명 : 경하민 고라주크메, 잘 들으라이.(애기구덕을 한 쪽으로 옮겨 놓는다)

느 나이 세 살 때, 동네에 불 크게 나신디! 나쁜 사람 들이 닥청이네 느네 셋아방 내노랜 허멍 잠앙 잠앙가부러찌.

순이 : 경행 우리 아방은 어멍 된?

어명 : 머 어떻게 말이가게. 다신 집에 못와주게.
 순이 : 계민 우리 아방 어디신거라?
 순덕 : 찌기 하늘에서 우리 지켜 뵙주게.
 어명 : (말 없이 끄덕 끄덕)
 순이 : 아~ 아방 보구정 해다.
 어명 : 울지 말고 이레 오라 (순덕이와 순이 흐느끼며 어명 무릎에 눕는다.)
 순이 : 어명, 우리도 왕이자랑 불러줍써.
 순덕 : 어명 노래 들으멍 잠들민 꿈 속에서라도 아방 만나질테주.
 어명 : 암 느네 아방이 찌디 하늘나라서 우리 순덕이, 순이, 어진이 항시 보멍 지켜
 줘주게
 순덕이 아방! 우리 아이덜 지금 추룩만 아무 탈어서 몸 건강히 지켜 줘써양!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우리아기	아니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베로
손모가지	밭모가지 걸리매영
지픈지픈	천지소레
드리챿닥	내챿닥 혈로고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금자동아	은자동아
우리 순이	잘도 크다.

물 허벅 소리 아늑하게 드리면서 순덕이와 순이 잠이 든다.

핑핑 핑핑 핑핑핑핑 핑 딱!

7) 발표와 구전 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유아들에게 교사나 음반으로 만 제공되었던 「왕이자랑」을 직접 같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평소 도평 마을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노인회관이 한 곳에 모여 있

어서 상호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송편도 빚으면서 10차시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보았다.

애기구덕과 물 허벅을 보여 드리면서 쓰임새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여쭙어 보고 지금까지 교사가 가르친 것이 맞는지 여쭙어 본다. 어르신들의 애기구덕 흔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아빠가 바로 저 애기구덕에서 자라났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될 때 그 아이에게도 불러주어야 할 제주도 사람들의 자장가임을 알도록 한다.

<표 14> 발표와 구전의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단계		발표와 구전		대상	만5세	차시	10차시	시간	40분
활동목표		-동네 어르신들에게 직접 「왕이자랑」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역할극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 단계	활동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미 적 감 지	미 적 자 극	동 기 유 발	교사	유아		4-5	.장구, 장구채, 물 허벅, 애기구덕, 아기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나누기 -도평 마을 노인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교사와 유아가 인사를 드린다. 「왕이자랑」 이야기나누기. -어르신들은 자식이나 손자·손녀를 재울 때 어떤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어르신들의 육아문화를 들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기구덕과 물허벅을 보여드린다. -어르신들 이런 물건 눈에 익으시죠? -제주도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지요. 이런 귀한 것들이 이제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10-15	.유아들이 긴장		

미 적 행 위	지 각 반 응	발 표 하 기	있게 되었고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고 아이는 이렇게 기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 15	.유아들이 긴장하지 않고 원활한 발표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격려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의 발표를 지원한다. 이렇게 사셨고 아이는 이렇게 기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시고 옛날 생각도 해보시고 잘 못 가르친 것이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아들의 발표를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하기 -역할극 「왕이자랑 왕이자랑」 발표하기 (자장가, 허벅장단, 물허벅 춤이 모두 포함된 구성) 			
미 적 행 위	체 험 활 동	교사		유아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하도록 한다. .즉흥적인 경우에 대처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과 마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짝을 이루어 손을 마주 잡고 ‘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제주도 전래 동요를 부르도록 한다. • 유아들이 어르신들 무릎에 누운 후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불러주시도록 부탁을 한다. • 교사의 “꼬기오” 소리에 일어난다. • 어르신들 가운데서 한 분을 선정해서 「왕이자랑」을 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 유아들도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안마를 해드리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한명 어르신 한 분씩 짝을 이루어 자유롭게 앉는다. • 유아는 어르신 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는다. • 동네 어르신이 불러주는 「왕이자랑」을 직접 할머니 무릎에서 들어본다. • 어르신들 안마 해드리기. 		

		개 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 동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내용을 비교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은 제주 의 고유문화와 언어, 생활도구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2-3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고 단절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가 치 화	가 치 판 단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전반적인 면에서 평가한다. •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2-3	.발표 후 감상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동극 발표 후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무릎으로 가서 직접 제주도 자장가 「웁이자랑」을 들어보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접촉과 전승으로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간절했다.

할머니들께서는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떠는 모습 만 봐왔는데 우리도 뭐 보여 줄게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자주 마을 노인 회관에 유아들이 방문과 함께 일방적인 공연중심이 아닌 상호관계가 더 활발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부록 2> 활동사진

1) 애기구덕 활용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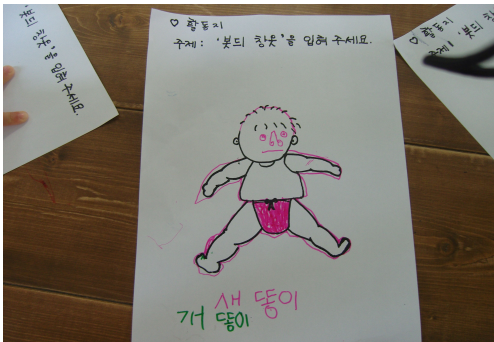


왕이자랑 노래 배우기



애기구덕 탐색하기

2) 조형활동 수업



색칠하고 아기 이름지어주기



뽀뽀옷 만들기

3) 허벅 활용한 수업



허벅장단 배우기



허벅 춤 배우기

4) 놀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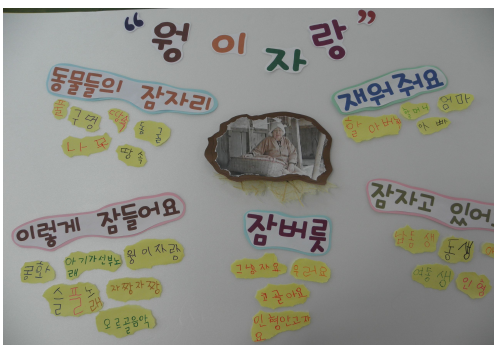


애기구덕 옮기기



팔죽담아 나르기

5) 주제망



「왕이자랑」 주제망



제주어 알아보기 활동지

<부록 3> 활동지

제주어 알아 맞추기

활동날짜	나의이름:	오늘의 기분
201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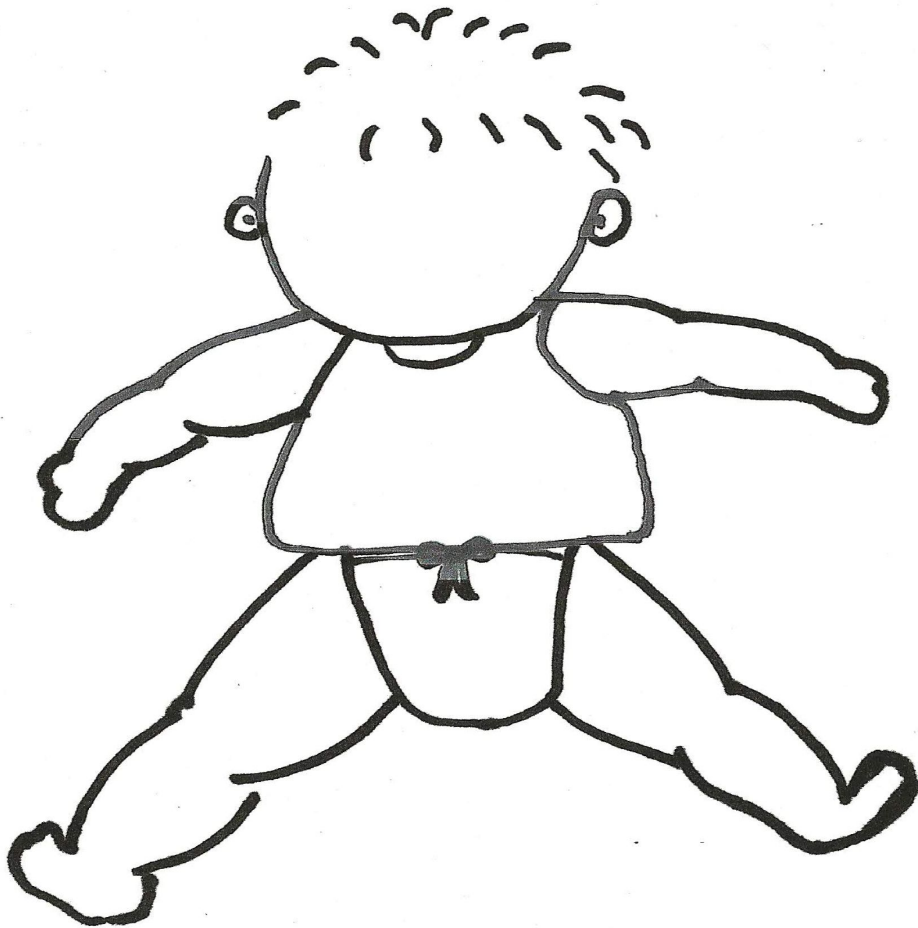


웁이 자랑(1)

웁이자랑 자랑 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을 주면 너를 주며 / ()을 주면 너를 주랴
 웁이웁이웁이자랑 웁이도 /자랑아 자랑자랑 어서자라
 ()먹영 키와줍서 / ()먹영 키와줍서
 (쌀밥) (좋은물)
 나라에는 총신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일가친척)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누영 잠을 자라
 ☆(()이로구나 응 기여기여 ()다
 나 ()착흐다 어마 착흐다) (착하다 내 아들,딸)

‘뽀뽀창옷’을 입혀주세요

활동날짜	나의이름:	오늘의 기분
2010년 월 일		



- ② 자장가(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자장 잘도잔다.)
 - ③ 똥이자랑(똥이야 자랑아 자랑자랑 물외 크듯 키와줍서.....)
 - ④ 모차르트 자장가(잘자라 우리아가 앞 뜰과 뒷 동산에.....)
 - ⑤ 슈베르트 자장가 (..옥같이 어여쁜 우리 아가야.....)
- 기타의견:()

설문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도 자장가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자료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사항은 학문적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유아들을 위한 수업자료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 대학원 권은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유아들의 잠자는 시간에 주로 어떤 음악을 들려주십니까?

① 동요 ② 전래동요 ③ 클래식 ④ 기타 음악 ⑤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다.

2) 애기구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다음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어렸을 때 듣고 자랐다. ② 듣고 자란 것 같지만 기억이 별로 없다.

③ 성장해서 들었다. ④ 들어본 적이 없다.

6)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① 불러본 적이 있다. ② 불러본 적이 없다.
③ 불러본 적이 있지만 이제는 기억을 못한다. ④ 들어본 적이 없다.

7)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르겠다.

<부록 5> 악보

<악보 2>

도평 백술생(여, 1922)

권은희 채록

우 - 이 - 자 - 랑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ten staves.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tempo marking of quarter note = 63.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ties, and dynamic markings. The lyrics are: 우 - 이 - 자 - 랑 - 우 - 이 - 자 - 랑, 우 리 애 기 잠 도 잘 도 - 잔 다, 밭 - 디 강 일 허 고, 물 도 질 어 오 고 허 여 사 헌 다, 혼 저 잠 자 라 -, 우 - 이 - 자 - 랑 - 우 - 이 - 자 - 랑, 어 - 서 자 라 어 - 서 자 라, 잠 - 도 자 라 잠 - 을 - 자 라, 어 - 서 자 라 - 어 - 서 - 자 라, 자 랑 자 랑 우 - 이 자 랑.

<악보 3>

도평, 현영호(여, 1927)

권은희 채록

워 이 자 랑

워 이 자 랑 워 - 이 자 랑

우 리 애 기 착 한 둥 이 잘 도 - - 잔 다 워 이 자 랑 - -

워 이 자 랑 자 랑 자 랑 워 이 자 랑

느 네 애 기 고 추 먹 영 우 는 소 리 여 우 리 애 기 곤 락 먹 영 울 엄 저 자 랑 자 랑 -

워 이 자 랑 워 이 자 랑 워 이 자 랑

우 리 애 기 착 한 애 기 잘 도 큰 다 워 이 자 랑 - -

워 이 - - 자 랑 자 랑 자 랑 워 이 자 랑

어 진 둥 이 야 어 진 이 야 혼 저 크 라 물 외 크 듯 키 와 줍 서

할 마 님 이 공 든 자 손 키 와 줍 서

워 이 - 자 랑 워 이 - 자 랑 자 랑 자 랑 워 이 자 랑 워 이 - 자 랑

<악보 4>

〈악보 18〉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제3형) 근간(根幹) 악보-화북동

등당 장단 (독창) [A1] 조영배 채록, 채보, 발췌정리

월 이 자 랑 자—랑 자 랑 월—이 자 랑 자—랑 자 랑

[A2]
은—을 주 면— 너—를 주 며 금—을 주 면 너—를 주 라

[A3]
월이 월이 월이 자 랑 월이 도 자 랑 아 자—랑 자 랑 어—서 자 라

[A4]
돈—밭—맥—영 키 와 줘 서 돈—물 맥—영 키—와 줘 서

[A5]
나 라 에 는 충 신 동 아 일 가 방 상 화 목 동 아 부—모 에 는— 효—자 동 아

[A6]
자—랑 자 랑 월—이 자 랑 어 서—누 영 잠—을 자 라

국문초록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유아교육 전공 권 은 희

세계화를 화두로 무조건 서양의 문화를 모방하려고 할 때 보다 우리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현재가 한국은 오히려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서가 담긴 우리 음악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음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장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상의 태어나 처음 듣는 노래인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은 애기구덕의 반복된 흔들림으로 장단을 만들어내었다. 유아기에는 제주도 전래동요와 놀이로 성인이 되어서는 ‘멜 후리는소리’, ‘서우젓 소리’로 짜임새를 갖추어 가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다. 여기에 자장가가 음악의 시작이며 민요의 근간이라는 비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와 제주의 자장가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하여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을 재구성하여 유아수준에 맞는 수업모형을 개발 적용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주도의 생활풍속과 출생 및 육아의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음악적 특징의 문헌 연구와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교육적 특징도 짚어보았다. 총 10단계의 지도안을 마련하여 제7차 유치원 과정의 표현생활영역 개정에 따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음악활동은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 배우기, 허벅장단 연주하기 활동을 하였으며, 미술활동은 ‘벗디창옷’ 만들기, 허벅만들기, 동작활동으로는 애기구덕 흔들어보기, 허벅 춤추기를 포함하였다. 놀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애기구덕 옮기기, 물허벅에 팔죽 담아 나르기를 편성하였으며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여 ‘자랑자랑 왕이자랑’ 극 놀이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배운 것을 발표하고 직접 제주도 자장가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 한 후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들의 음악적 모국어 회복시키고 지역문화와 친근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제주도 자장가 「왕이자랑」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유아들로 하여금 먼저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친밀해 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서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의 양육문화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Guidance for Jejudo Lullaby "Wungijarang"

Kwon Eun-hee

Major in Early Childhood National Classical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ational Classical Music Education

Chugang University

Korea increasingly draws attention from the world as it pays attention to Korean things instead of unconditionally imitating Western culture on the ground of the worldwide globalization trend. What matters at this point of time is to return to children our music that shows our unique sentiment and language. The first step toward that is teaching children Korean lullabies, which are the basis of our music.

A lullaby of Jeju Island "Wungijarang" is the first song that babies hear in that region. This song created Jangdan by utilizing the repeated swing of Aegigudeok. Residents on Jeju Island represent their lives through local traditional children's songs and play in childhood and by singing "Melhurinunsori" and "Seowujetsori" in adulthood. So a lullaby could be said as the beginning of music and the basis of folk so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ctional model tailored

to the level of five-year-old preschoolers by rearranging the Jejudo lullaby "Wungijarang" in an effort to facilitate the revival of waning local culture and Jejudo lullabies.

After the customs of Jeju Island related to life, birth and child rearing were investigated,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to find out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Jejudo lullabies, and their educational characteristics were checked as well to predict what educational effects they would produce. Lesson plans of 10 stages were devised by taking an inclusive approach in compliance with the revised expressive life section of the 7th kindergarten curriculum.

Two music activities were performed, which respectively centered around learning the Jeju lullaby "Wungijarang" and performing Heobeok Jangdan. And two art activities were provided as well, which respectively dealt with making Botdichangot and making Heobeok. In addition, two movement activities that respectively focused on shaking Aegigudeok and dancing to Heobeok Jangdan were offered, and two play activities were also provided. One play activity was moving Aegigudeok, and the other was filling red-bean porridge in Mulheobeok and carrying it with hand. Besides, a drama play named "Jarang Jarang Wungri Jarang" was attempted by using the dialect of Jeju Island, and then the preschoolers who participated in all the activities gave a presentation on what they learned in front of local adults and listened to the Jejudo lullaby. A pretest and posttest were

implemen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al teach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Jejudo lullaby "Wungijara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eaching the preschoolers to learn about music-related native tongue and get used to local culture.

What matters above all is to let preschoolers get familiar with local traditional culture and then experience cultures of the other regions, and the child-rearing culture of Jeju Island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other inland regions is expected to be of use for local early childhood education.